



꺾이지 않는 반도체사
양향자 의원
04



Economy

코스피	2500.94 (-0.46)	코스닥	845.06 (+1.88)
금리 (미국 3년)	3.210 (-0.071)	환율 (원/달러)	1322.80 (-15.40) (4일)

“韓美日 협력 긴요... ‘후쿠시마 오염수’ 韓 시찰 합의”

韓日정상회담

韓 반도체 업체-日소부장 기업
견고한 공급망 구축 공조 강화
우주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 논의
G7 정상회의 계기 협력 구체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사에서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2일 만에 다시 만나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양국 간 경제·안보·인적교류·첨단산업기술 등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계기 약식회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의 계기 회담,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실무 방일 회담에 이어 네 번째다.

특히, 이번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서틀외교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일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서틀외교 복원을 제안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이를 받아들여 실무 방한하면서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방한 이후 12년 만에 정상 서틀외교가 재개됐다.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 양국 간 주

요 관심사가 의제로 다뤄졌으며 한일 양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안전성 검증’을 위해 한국의 전문가들을 현장 시찰단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한일정상회담은 공식 환영식과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으로 순으로 진행됐고, 회담 후 양 정상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를 비롯해 글로벌 아젠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

밀하게 협력하기로 다시 뜻을 모았다”며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앞으로 더 발전해나가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 3월 실무방일 당시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 출범과 관련 “한일 양국의 인적교류 규모가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2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양국 국민이 서로 이해를 깊게 하고, 우정과 신뢰를 쌓기 위해 미래세대 교류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협력과 관련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공조를 강화하고, 우주·양자·인공지능(AI)·디지털 바이오·미래소재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와 연구개발(R&D) 추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보건·글

로벌 공급망·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나가고, 히로시마 방문 계기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 한인 원폭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에 이어 기시다 일본 총리는 외무·방위당국 안보 대화를 5년 만에 재개하기로 논의했으며 양국 의원들 간의 교류도 활성화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일본 측이 한국의 오염수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파견을 받아들여기로 결정했다”면서도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JY, ‘제2반도체’ 바이오 육성 네트워크 가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글로벌 바이오 리더들 연쇄 회동 협업 확대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제2의 반도체 바이오 사업 육성을 위해 ‘JY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했다.

7일 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미국 동부에 있는 글로벌빅파마와 바이벤처 인큐베이션 회사 등 글로벌 최고 바이오 업체 CEO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바이오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장은 ▲호아킨 두아토 J&J CEO ▲지오반니 카포리오BMS CEO ▲누바 아페얀 플래그십 파이어니어링 CEO ▲크리스토퍼 비에바허 바이오젠 CEO ▲케빈 알리 오가는 CEO와 각각 만났다.

이들 기업은 이 회장과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BMS는 2013년 삼성에 의약



품 생산 첫 발주를 해 삼성 바이오 사업 성장 토대를 마련해준 기업이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으며, 지난해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모두 삼성에 매각했으며 삼성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럽지역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는 등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J&J는 창립 140주년 역사를 가진 글로벌 최고 바이오 제약사다.

특히 플래그십 누바 아페얀 CEO는 모더나 공동 설립자로, 삼성과 mRNA 백신 생산 계약을 통해 국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지원하며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플래그십은 삼성과 유망 바이오 벤처 발굴 및 육성에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 회장은 10여년전 바이오 사업에 진출함과 동시에 주요 파트너사들과 긴밀한 협업과 신속한 의사결정 및 투자, 이를 통한 미래 성장 산업 선점과 압도적인 제조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1위 CDMO 기업으로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도 바이오 업계 리더들과 연쇄 회동을 통해 바이오 산업 전반에 걸친 글로벌 협업을 한층 강화하고 ‘제2의 반도체’를 육성하는데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빅파마들과 협업을 확대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전망이다.

이 회장은 제약사 CEO들과 만난 후 북미 판매법인 직원들을 만나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출발점은 중요하지 않다, 과감하고 끈기있는 도전이 승패를 가른다, 반도체 성공 DNA를 바이오 신화로 이어가자”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韓美 금리차 1.75%p ‘역대 최대폭’ 물가나 경기나... 섹범 복잡한 한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차가 역대 최대폭인 1.75%p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연준은 지난 3일(현지 시간) FOMC 정례회의를 열고 4.75~5.00%였던 기준금리를 5.00~5.25%로 0.25%p 올렸다. 지난 2007년 8월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 활동은 1분기에 완만한 속도로 확대됐다”며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는 견고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은 여전히 높은 수준

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엄격한 신용 상황은 경제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 영향의 정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상당히 주의하고 있다”고 금리인상 이유를 밝혔다.

◆ 한미 금리차 1.75%포인트로 확대

문제는 연준이 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한국(3.50%)과 미국(5.00~5.25%)의 기준금리 격차가 1.75%p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역대 최대폭이다.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면서 지난해와 같은 ‘킹달러’ 시대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

(8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금주 ‘법원의 시간’ 돌입 /사진 뉴스1
▲ 여당 ‘민주, ‘대국민 반일 가스라이팅’... 대한민국 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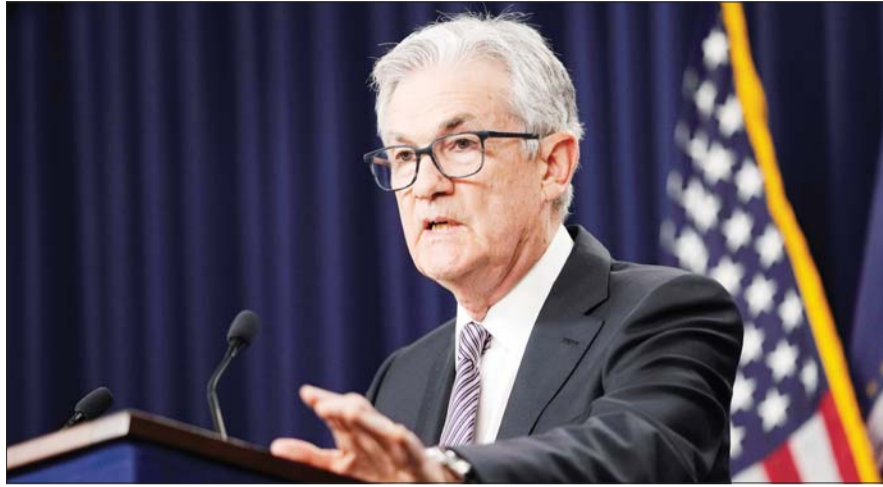
▲ 시도때도 없이 뺨!... ‘공해 수준’ 재난 문자 줄어든다
▲ 민주,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에 “한동훈 엄정한 수사 나서야”



▲ 한 총리 “영국왕 대관식서 만난 정상들,尹 노래 전 세계 화제” /사진 뉴스1
▲ ‘자강론이나 신당론이냐’... 정의당, 6월말 재창당 노선 결정

美 금리인상 막바지... 대출자, 고정 vs 변동 금리선택 고민

5대은행 고정금리 3.70~5.90%
변동금리는 4.09~5.86%대 집계
동결 예상엔 '고정', 하락 '변동' 유리
금리 저렴한 '인터넷은행'도 대안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했으며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동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AP·뉴시스

치솟던 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상 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출자를 고려했던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렸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 국내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서다.

미 연준은 이번달에 4.75~5.00%였던 기준금리를 5.00~5.25%로 0.25%p 올렸다. 이는 2007년 8월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미국은 침체된 경기를 감안해 금리 동결 가능

성을 시사했다. 또 경기침체 폭이 예상보다 커지면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이번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7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3.70~5.90%, 변동금리는 연 4.09~5.86%로 집계됐다. 국내 은행 주택담대 고정금리 하단은 3%대를 유지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국내 시중은행의 금리 수준은 비슷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한은이 지난 2월과 4월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지만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한달새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오히려 높아졌다. 현재 5대은행의 전세대출금리(2년 고정)는 3.49~5.93%로 한달 전(3.46~5.92%)보다 소폭 상승했다.

따라서 업계는 금리가 한동안 안 내릴 거라고 보면 고정금리로 묶는 게 낫지만, 하반기에 내려간다고 판단하면

변동금리가 낫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고정금리의 경우 통상 3년 안에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밖에 금리가 저렴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3곳(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중 지난 3월 중 취급된 신용대출의 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은 카카오뱅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평균금리는 5.11%로 5대 시중은행(5.57~6.00%)과 비교해 최대 0.9%p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한도대출(마이뉴스통장)의 경우도 카카오뱅크의 평균금리(5.59%)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하나은행(5.87%), 신한은행(5.93%), 케이뱅크(5.97%)가 뒤를 이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여행·외식만 회복세... 경기회복 선순환은 아직 요원

차이나 뉴스&리포트
노동절 연휴 여행객 2억7400만명
전년비 70%, 코로나 이전비 19% ↑
3월 광공업생산·고정자산투자 둔화

중국발 혼풍에 대한 기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노동절 황금 연휴동안 여행객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보복여행'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지만 온기는 소비, 서비스업에 한정됐다. 향후 경기전망도 악화되는 등 소비 개선이 제조업 회복과 투자 확대에 이어지는 경기

회복 선순환은 아직 요원하다.

7일 중국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 기간 여행객은 2억7400만명으로 전년 대비 70.8%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19.1% 증가해 노동절 여행객 수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관광수입 역시 1480억위안(한화 약 28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28.9% 급증했고, 2019년 대비로도 0.7%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관광수입이 2019년보다 많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온라인 여행플랫폼인 트립닷컴에 따

르면 연휴 기간 동안 국내 관광지 입장권 판매액은 작년 대비 9배, 2019년 대비로도 2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 여행 예약 건수도 작년 노동절보다 700% 가까이 급증했다.

상무부가 발표한 노동절 소매판매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했다. 특히 외식이 57.9%로 전체 소비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말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이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수요 위축, 공급 충격, 약한 기대 등 '3중 압박'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강한 회복세가 여행과 외식에만 그쳤다는 데 있다.

골드만삭스는 "노동절 연휴 데이터는 향후 몇 개월 동안 소비와 서비스 회복에 좋은 징조"라면서도 "이동성의 완전한 회복과 역눌렸던 소비 지출과 같은 중국이 리오프닝 이후 가장 쉽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문은 이제 다 끝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가 제조업 회복이나 투자 확대에 이어지는 경기회복 선순환 고리는 오히려 약화됐다.

실물지표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3월 소매판매만 예상치를 크게 웃았으며, 광공업생산과 고정자산투자는 예상에 못 미친 것은 물론 1~2월보다도 둔화됐다.

향후 경기를 가능할 수 있는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49.2로 4월달만에 수축국면에 진입했다.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이신 제조업 PMI 역시 4월 49.5에 불과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제조업 PMI가 기준점인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부양 동력이 소진됐음을 시사한다"며 "서비스 회복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역시 오래 지속되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t1@

인사말씀

이번 故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의 상사시(喪事時)에 깊은 애도와 조의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는 것이 도리이오나 아직 황망중에 있어 우선 지면을 빌려서나마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5월 8일

- | | | | |
|-----|---------------|-----|---------------|
| 미망인 | 홍임선 | 손 자 | 이기환, 이성환, 이태환 |
| 자 | 이경하, 이동하, 이정하 | 손 녀 | 이성은, 이민경, 이수민 |
| 녀 | 이진하 | 외손자 | 이인환, 이승환 |
| 자 부 | 장선영, 조선경, 이희정 | 외손녀 | 이지운 |
| 사 위 | 이동찬 | 외손부 | 이낙규 |

배상

故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의 상례에 정중한 조의를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JW그룹 임직원 일동 올림

코로나 위기단계 '심각' → '경계' 하향조정 예고

질병관리청, 하향엔 의무격리 기간 5일로
입국 3일 이내 PCR검사 권고조치도 종료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공식 해제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1월 PHEIC를 선포한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PHEIC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으로,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의미한다. WHO의 결정에 따라 국내 방역 당국도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6일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WHO는 5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일(현지시간) 개최된 제15차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한국의 위기단계 역시 조만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포함한 1단계 조치계획을 5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낮아지면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된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검역 조치가 종료되고 거의 매일 발표하는 통계도 주간 단위로 바뀐다. 병상 운영도 일상에 가까워져 한시지정병상 운영이 최소화되고 상시지정병상 운영이 중심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해제되고, 신규 확진자 숫자 등 통계는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이후 의료기관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나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2단계 조치를 거쳐 3단계에선 완전 일상회복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단계는 7월, 3단계는 내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WHO는 아직 팬데믹의 완전한 종식은 아니라며 PHEIC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을 마련해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WHO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해제하더라도 새로운 변이 발생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한국은 향후 코로나19 후유증 연구와 하수역학 등 공중보건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尹 “한일관계 개선 속도”... 기시다 “대화·협력 의견 일치”

尹 대통령 “12년만에 서틀외교 복원
미래 협력 위한 유익한 발걸음 되길”

기시다 총리 “양국 관계 진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복원된 서틀외교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유익한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와 의 소인수회담에 이어 진행된 확대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님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5월 일본 이시카와 강진으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해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일은 한국 대통령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이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일본 총리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양자 방문했다”며 “서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부인 유코 여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는 두 달이 채 안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출발한 한일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좋은 변화의 흐름을 처음 만들기는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 많다”며 “지금 한일관계 흐름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님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지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한일관계도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저는 과거 양국의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의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일 협력과 공존은 양국 공동이익은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국제 사회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돼 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더 끈끈한 연대로 국제사회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님의 따뜻한 말에 감사하다”며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여러분의 환대에 감사드린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 이시카와현의 위로 메시지를 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는 일한 관계를 중층적으로 강화하고 재구축함과 더불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며 “두 달도 지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미 다양한 대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회담에서는 그러한 양국 관계 진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며 “G7(주요 7개국) 히로시마 정상회의도 염두에 두면서 북한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신 정세와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조와 관련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12년만에 현직 日총리 현충원 참배

기시다 총리, 도착 직후 현충원 이동
대통령실 잔디마당서 환영회 열려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의 실무 방한 첫 일정으로 현직 일본 총리가 현충원을 참배한 것은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와 배우자 유코 여사는 이날 정오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후 현충원으로 곧바로 이동했다.

현충원에 도착한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는 현충원으로 입장하다 멈춰 서 ‘국기에 대한 경례’ 구호에 태극기를 향해 허리를 숙여 경례했다. 태극기 옆에는 일본 국기도 함께 게양됐다.

기시다 부부는 현충탑으로 이동해 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경례한 후 묵념했다.

이어서 방명록 앞으로 이동해 미리 준비된 방문 문구에 ‘岸田文雄(안전문웅, 기시다 후미오)’ 서명을 했다. 방문 문구는 ‘The Visit of His Excellency Kishida Fumio Prime Minister of Japan To The Republic of Korea Ma

y 7, 202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대한민국 방문-2023년 5월 7일)’이다.

현충원 참배를 마친 기시다 총리는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한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를 현장 앞까지 나와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기시다 총리 방한을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을 개최했다.

한일 정상은 단상에 나란히 서 의장대의 경례를 시작으로 일본 국가와 애



방한 일정을 시작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분향하고 있다. /뉴스1

국가 연주를 차례로 들은 뒤 레드카펫이 깔린 잔디마당으로 내려와 국군의 장대를 사열했다.

이어서 양국 주요 참모들과 악수로

인사를 나누고 소인수회담을 위해 대통령실 청사로 입장했다. 기시다 총리는 청사 1층 로비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박정익 기자

10th KOREA READING FESTIVAL

읽는 사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양특례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 제10회 대한민국 독서대전 고양

변화하는 나, 성장하는 우리

본축제 일산호수공원
2023. 09. 01. — 09. 03.

연중 고양시 전역
2023. 02Feb — 12Dec

“반도체 패러다임 변화 대응… 국가적 지원·인재육성 절실”



인터뷰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서구 을)

꺾이지 않는 반도체사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국회 유일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도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 특히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 본인도 반도체 인재 육성의 수혜자였고, 삶의 행적을 되짚어 보면 그야말로 ‘비연속적 혁신’을 시도한 당사자였다.

美·中 반도체 전쟁, 韓 엄청난 기회 인재들에게 국가적 기회 부여해 대세기술 필요 사업으로 배치해야

상고를 졸업하고 1985년 삼성반도체에 ‘보조원’으로 입사해 당시 ‘고졸’, ‘여성’이라는 딱지와 맞서 싸웠다. 자기 책임 하나 없던 보조원 양향자는 수많은 선례를 남기며 유망한 반도체 엔지니어가 됐고, 입사 28년 만에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꿈 너머의 꿈은 무엇입니까”란 영입 제안을 받은 뒤 그토록 꿈꿨던 엔지니어의 길을 멈추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 후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해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20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21대 총선에서 재도전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 사이인 2019년 일본의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때는 당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정의 강력한 대응을 유도했다.

지난해엔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시설투자 혜택 확대와 인재 육성 지원안 등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4년차, ‘국민통합·국가번영·개인행복’이라는 정치의 본령이 과학기술에 있다는 뺏속까지 엔지니어, 양향자 의원과의 인터뷰는 자연스레 한미정상회담 이야기로 흘러갔다.

◆“가치 사슬에서 우리 기술 위치 정확히 파악해야”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반도체 등 양국의 첨단기술 관련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급망에서 있어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 과학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독소조항 제외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다.

양향자 의원은 양국 간 추후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기술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상대국의 협상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이공계 인재(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 각 2023명을 선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원천 기술 확보와 메모리 기술 유출이라는 희망 섞인 우려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양질의 엔지니어 양성 지원 필요 ‘K-칩스법’ 시즌2 촘촘히 입법해 첨단 산업 지원에 총력 기울일 것

양 의원은 “왜 인적 교류를 하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장단점은 무엇인지 봐야 한다”며 “우리에게 기회도 될 것이고 기술이 유출되는 위기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반도체 유일주의는 엄청난 기회”

전 세계 반도체 선진국들은 해외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맞서려면 국내 반도체 인재 육성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메모리 반도체는 해외 인력까지 채용을 해서 끌고 오고 있는데, 이제 엔데믹이 되니 해외 인력이 자국으로 돌아가고 글로벌 경쟁국의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불러들이고 있다”며 “결국 우리 인재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인재들이 밭이 묶인다고 기업의 장학금을 안 받는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싶는데 국내에 머무르고 싶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숨겨진 영웅들에게 국가적으로 기회를 부여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대세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배치를 해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연한 교육제도, 더 유연한 예산”

양 의원은 최근 대만을 다녀온 일화를 전해주며 한국도 양질의 엔지니어를 다수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대만은 어린년부터 졸업을 앞둔 대학생까지 꿈이

대부분 엔지니어다. ‘왜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고달파서 하기 싫다고 한다. 평생 사람의 아픈 모습을 보고 살아야하는 것이 고달프다는 인식이 있었다.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으로 보내려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예산 제도에 대해서도 “대만은 인구가 2300만명인데 예산은 117조원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100만명인데 예산이 630조원이다. 어림잡아 우리가 대만 인구의 2배라고 하면, 고정 예산이 300조원이어도 충분히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말하길, 우리는 600조원이 고정 비용이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이 30조원 밖에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정체된 한국 사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양 의원은 “자살률 1위·저출생률 심각·기후위기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기존의 문법대로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성공의 역사도 용량을 키워야 하는데 작게 만들어야 하고 속도는 계속 빠르게 해야 하는데 전력 소모는 더 작아야 한다. 성능은 좋아져야 하는데 가격은 더 낮춰야 한다. 이 모순 극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결국은 기술자, 히든 히어로”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K-칩스법’ 시즌2를 더 촘촘하게 입법해 첨단 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자신했다.

양 의원은 ▲국가첨단사업단지 인프라 국가·지자체 직접 지원 규정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이익 인접 지자체 공유 ▲전략기술 유출자 해고 가능 규정 마련 ▲국가첨단사업단지 용적률 450%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근로환경 안전 개선 및 기업 부담 완화 ▲핵심전략기술 정보의 외국 정부 제공 방지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정익·최영훈·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양향자 무소속 의원 프로필(광주 서구 을 1967.4)

- 1985년 삼성반도체 입사
- 2014.1 삼성전자 메모리반도체 플래시설계팀 상무
- 2016.8~2018.8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2018.8~2019.07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 2019.07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0.05~ 제21대 국회의원
- 2020.8~2021.4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2020.9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부위원장
- 2021.4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2.6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영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양봉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1988년 존재감을 알린 대한민국



2002년 처력을 보여준 대한민국

2030 부산 엑스포로
또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우리의 힘은 더 위대합니다

2030 부산 엑스포 개최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SK도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WAVE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ww.thewave.net



내부 정비 마친 與野... 전세특별법 등 살바싸움 본격화

신임 원내대표 체제 출범
노란봉투법 등 충돌 예고
'강행 vs 거부권' 악순환 우려



지난 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의 전세사기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태의 민주노동당 부위원장,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 등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돌입한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3법 처리 등을 놓고 여전히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량으로 돌려주지 않아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시 등 전국적으로 피해를 낳은 이른바 '전세사기'는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떠올랐다.

당장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피해 주택의 경매를 중단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과 범위·임대보증금채권매입이견을 보이며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는 위원들의 논의 끝에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6가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4가지로 줄여 완화했으나, 야당은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다면서 법안의 사각지대로 구제받을 수 없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 제안에 반대했다.

또한, 여당은 정부가 사기당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거주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

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피해자를 신속구제 하는 법안을 발의 하는 등 등 '정부의 선구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의 입장 대립이 첨예한 일명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강행 의사를 밝혀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이 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쟁의행위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가 제한된다.

지난 2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넘은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며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노란봉투법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된 노란봉투법을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표결(소관 상임위 5분의 3 이상의 동의)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지난달 27일 국회에 부의됐으나 정부·여

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여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언론노조 등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주장해왔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이에 5월 임시국회는 지난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거부권 정국'으로 휩싸이는 가운데 원내 협상력이 발휘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새로운 시대 여는 시작점” vs “당당한 대일 외교 펼쳐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與野 한일정상회담 공방

국민의힘 “반일 선동 멈춰야”
민주당 “귀 막고 굴욕외교 지속”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퍼주기-굴욕 외교'가 아닌 당당한 대일 외교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멈추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야당의 고언을 국민의힘은 ‘정략적, 맹목적 반대’라고

편하다”며 “국민의 질타와 야당의 비판이 높음에도 귀 막고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솔한 사과 요구, 피해자 중심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는 너무도 분명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우리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 일본에게 당당한 외교를 하라는 주장이 정략적·맹목적 반대인가.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난 3월의 ‘굴욕 외교’를 똑똑히 목격했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굴욕 외교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말이 고까운가. 그러면 제대로 국익을 최우선하는 외교를 하시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은 ‘퍼주기’, ‘굴욕 외교’가 아니라 우리 국익을 지키며 하라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뽑아주었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더이상 국민을 화나게 하지 말고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적 결단이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을 끌어냈다”며 “12년 만에 이

뤄지는 셔틀외교는 양국이 상호 국익과 국제 과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숱한 외교적 실책을 바로 잡고 성과를 내며, 글로벌 성장을 위한 잠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국익을 외면한 채 반일 선동과 외교 성과를 폄하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모두 내려놓고,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와 반일 감정을 끝없이 유지하라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제1야당

이 한 치 앞의 국제정세도 내다보지 못한 채 우물 난 개구리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굴욕적 모습이며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에 묻고 싶다. 근시안으로 국익은 팽개치고 ‘반일 몰이’로 정파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기만하는 대국민 반일 가스라이팅이 아닌, 국익을 위해 초당적 자세로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요구 속에 ‘윤석열-기시다의 시간’이 열렸다”며 “양국은 사과와 용서를 통해서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강력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낼 것이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한일 관계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당 징계방침에 반발... 여론몰이 나서

징계 반대 서명서 등 부각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 파문' 등 최근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앞서 여론전을 시작한 모습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도 영향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징계 반대 탄원서' 참여 독려로 여론전에 나섰다. 지난 6일 김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2만명이 참여한 서명 절반은 가짜'라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기자회견문 어디에도 징계 반대 서명 2만1725명 모두가 책임당원이라 한 사실이 없고, 언론에 그렇게 주장한 사실도 없다”며 반박하는 한편, 온라인 탄원서 링크도 함께 올렸다.

김 최고위원 징계반대 국민모임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심히 싸워 온 김 최고위원을 징계하면 누가 죄과 진영과 맞서 싸우겠냐”며 기자회견한 뒤 당원 2만1725명의

징계 반대 서명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 부각한 셈이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같은 날 의원실 내부 회의 녹음 및 외부 유출, 정치후원금 후원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최근 의원실에서 ▲업무상 횡령 ▲공무상비밀누설 ▲공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 행위가 발생, 이를 저지른 의원실 직원에 대한 경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민주당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검찰특별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7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외교 옹호' 발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두고 “박근혜 공천 개입”을 수사한 검사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실’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 수석과 태 의원은 사실을 부인하지만 그런 해명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며 “그간 끊임없이 용산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했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대통령이 당 대표(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내부 총질러’로 규정한 체리파봉 사건부터 전당대회 때 ‘나경원·안철수’ 주저앉히기와 전대를 변경까지, ‘윤심’을 총족시키기 위해 수단·방법 안 가린다는 정황이 파다하다”면서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이 수석은 유력 당 대표 주자던 안철수의 의원을 향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니라는 한 마디만으로 이번 일을 넘길 수 없는 이유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범죄다. 수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우리 가족 모두 **마그네슘 충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마그네슘
함량 UP
신제품 출시

신제품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마그비스피드 액 근육경련 | 육체피로 | 체력저하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액 Double Action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우리금융 보험·증권 등 '비은행 M&A' 절실

우리금융, 순익 8.6% 올랐지만
하나·농협금융에 3·4위 빼앗겨
메리츠금융에도 시총 역전 당해
우리은행 실적 의존도 90% 육박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나서야



우리은행 본사 전경. /우리은행

지난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한 우리금융지주가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M&A)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보험사, 증권사가 없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에게 3위 자리를 내줬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증권사 인수에 적극적이지만 M&A 시장에 매물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금융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증권사가 마땅치 않은 셈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최근 실적발표를 통해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이 9113억원으로 전년 동기(8392억원)보다 721억원(8.6%)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소득 증대가 실적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다만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은 하나금융에 3위 자리를 내어줬고, 농협금융에게는 오랫동안 지켜온 4위 자리마저도 빼앗겼다.

하나금융은 올해 1분기 1조10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농협금융은 947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대비 58.8% 급증했다.

4위 자리를 지켜온 우리금융은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지주사 이익 순위에 변동이 생

긴 주요 요인은 경쟁사들의 비이자이익 증가가 꼽힌다.

하나금융의 비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9% 증가한 7788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달성했다. 외환매매익과 주요 관계사의 유가증권 등 트레이딩 실적이 증대되면서 매매평가익(4801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136.4%(2771억원) 증가했고, 수수료이익은 4452억원으로 집계됐다.

농협금융 역시 비이자이익이 72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9%(4077억원) 증가했고, 유가증권 운용 손익이 216.9% 늘어난 586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우리금융은 타 금융지주와 달리 보험사,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실적 가운데 90% 이상을 우리은행이 책임지고 있다.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 경쟁에서 밀린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출자 여력은 약 7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증권사 인수도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임종룡 회장도 증권사 인수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시장에 마땅한 매물이 없어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또한 증권시장에서는 최근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통합해 출범한 메리츠금융지주에 시가총액을 역전 당해 4대금융지주 명성에도 흠집이 났다.

지난 4일 기준 우리금융 시가총액은 8조4819억원으로 메리츠금융 시총(9조5155억원)보다 약 1조원가량 낮은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은행 의존도를 탈피하지 않는 이상 금융지주 내 3위 싸움도 힘들어 보인다"며 "매물이 없는 대형증권사 인수보다는 보험사를 먼저 인수해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증권사 인수에 나서려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 매물로는 KDB생명과 ABL생명, MG손해보험이 있다. 대형사인 롯데손해보험도 잠재적인 매물로 꼽히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우리은행, 어르신 이체수수료 전액 면제

'상생금융 3·3 패키지' 일환

우리은행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3·3패키지'의 일환으로 만 60세 이상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창구·ATM, 텔레뱅킹 타행환 이체수수료를 오는 8일 어버이날부터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만 60세 이상 고객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비롯한 ATM, 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이용 편의 향상 및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설한 시니어 특화 점포인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동소문로시니어플러스영업점, 영등포시니어플러스영업점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근원물가 여전히 높지만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도 높아져

>> 1면 '韓美 금리차 1.75%p...'서 계속

또한 높은 수익률을 좇는 외국인 역시 국내 주식시장 등에서 투자 자금을 빼면서 외화유출과 수입물가 등이 올라 물가불안을 키우게 된다.

한은 금통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전년 동월 대비)였다. 지난해 2월(3.7%) 이후 14개월 만에 4% 아래로 떨어졌다.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9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고물가가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물가상승률 목표인 2%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근원물가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은 5월 금통위서 금리 올릴까 물가 고공행진과 수출 부진 등 경기 침체를 고려하면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리지만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리스크(위험)가 커질 것이란 우려에 금리인상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한은은 지난 4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

리 인상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외 금리차가 확대된 상황에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과 함께 시장 교란 행위와 쏠림 현상 등에 의한 변동성 확대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현 상황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금리차가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부담도 커졌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23 신한라이프 영업대상 시상식에서 이영종 사장(왼쪽 열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 노고 인정 '영업대상 시상식'

보험 브리핑

삼성생명 인터넷 뉴 연금보험 출시
배라 등 모바일 상품권 증정 이벤트

농협손보, 냉해 피해 과수농가 방문
최문섭 대표이사 "신속조사" 약속

삼성생명이 연금보험을 출시하고 기념행사를 기획했다.

◆배스킨라빈스, 도미노 포테이토피자 세트 상품권

삼성생명은 다이렉트 채널에서 '삼성 인터넷 뉴(NEW) 연금보험' 출시를 기념해 모바일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뉴 연금보험의 장점이 담긴 4가지 보기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장점 하나를 선택해 응모할 경우 추첨을 통해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상품권을 증정한다.

예상 연금 수령액을 계산한 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도미노 포테이토피자 세트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삼성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 해약하더라도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해약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원금에 대한 손실이 없는 것이다. 또 5년납, 10년 이상 유지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라이프가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기 위한 행사를 단행했다.

◆영업가족 및 임직원 1100여명 참석

신한라이프는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23 신한라이프 영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했다. 영업가족과 임직원 등 약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보험 업계 최고의 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톱 클래스(TOP CLASS)'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해 격려와 축하를 건넸다. 진 회장은 "국내외 불확실성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욱 빛났다"며 "단순히 상품 하나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가정의 라이프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NH농협손해보험이 냉해 피해 농가를 위한 지원책을 논의한다.

◆전남 남주, 경북 의성 과수농가 방문

NH농협손해보험은 저온으로 인해 냉해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를 방문해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을 위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장에는 최문섭 NH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직접 나섰다. 손해 조사 담당자들과 함께 냉해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작과 불량 등의 피해를 본 과수들을 살펴보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약속했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 냉해 피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김정신 기자 kimsan119@

신협, 상반기 51명 내외 신입공채 실시

모집 소재 지역인재 우대 채용
연령·학력·전공 등 제한 없어

신협중앙회는 '2023년 상반기 신용협동조합 신입직원 공동채용'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2023년 상반기 신입직원 공동채용 규모는 총 28개 신협 51명 내외다. 공동채용제도는 중앙회의 공정하고 공신력 있는 채용 절차를 거쳐 전국의 우수인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채용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한다. 모집 신협 소재 지역인재를 우대해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에 연령, 학력 및 전공 제한이 없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 면접전형 절차



를 보완했다. 외부 위원 선임 권고와 심사역량 강화를 위한 면접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하여 면접에서의 객관성을 강화한 것이다.

오는 31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내달 4일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기전형을 치른다. 이후 같은 달 14일부터 모집 신협별 최종 면접 절차를 거쳐, 26일 최종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김정신 기자

친환경 바람타고 불황 끝... 韓 조선 3사, '흑자시대' 연다

조선3사, 연초부터 수주 밸리를 줄 모르는 친환경 선박 인기 고부가 선박 수주 실적 개선 집중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맞춰 기대 ↑

국내 조선업계가 친환경 바람을 타고 수주 훈풍을 맞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체들은 고부가 선박인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선을 중심으로 수주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력 확보로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에 맞춰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화그룹으로의 인수를 확정지은 대우조선해양은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5월 7일 기준 올해 수주 목표치(157억4000만달러)의 62.2%(선박76척·97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수년 간 기록한 수주 기록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수치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달 초 총 2조 7900억원 규모의 가스선 12척을 수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 2022년 인도한 200K LNG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주했다. 친환경 선박 수주로 수익성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처럼 2021년부터 수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고정비 감소 효과와 선가 회복, 원자재 가격 인상 둔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8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3964억원) 대비 흑자 전환했다. 건조 물량 증가 및 선가 상승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3분기부터 세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수주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수주 실적이 빠르게 충족되고 있다"며 "규모가 큰 건의 대형 수주도 압박한 분위기"라고 했다.

삼성중공업도 올해 안정적인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까지 총 25억달러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올해 목표치 95억달러의 26%에 달하는 수치다. 삼성중공업은 친환경 수주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1분기 6년 만에 흑자 전환(영업이익 196억원)에 성공했다.

삼성중공업은 친환경 선박은 물론 '바다 위의 LNG 공장'으로 불리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에서 경쟁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FLNG는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한 뒤 배 위에서 정제하고 LNG로 액화해 저장·하역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해양플랜트다. 육상 설비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고, 해저 파이프를 설치하지 않아 생태계 보호도 가능하다.

삼성중공업은 FLNG 시장 가능성을 보고 2006년부터 개발에 나섰다. 전 세계 FLNG 5기 중 4기를 수주하며 경쟁력도 입증됐다. 지난 2일엔 FLNG 부유체 독자모델인 MLF-N이 노르웨이 DNV선급으로부터 기본 인증을 받기도 했다. 해당 기술은 원가 절감 효과가 두드러져 선박 적용 시 상당한 고부가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FLNG 1기 수주 금액은 10억달러 이상"이라며 "최근 LNG 운반선이 1척에 2만5000만달러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FLNG 시장은 충분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 품에 안긴 대우조선해양은 '한화오션'이라는 새이름으로 수주전에 본격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LNG운반선을 제외하면 주력 제품이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까지 올해 목표치 69억8000만달러의 15%(10억6000만달러)를 수주하는데 그쳤다. 다만 FLNG, 부유식 저장 재기화설비(FSRU) 등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합병 이후 공격적인 수주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화가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진출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체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다양한 고부가 선박 수주로 실적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 카타르 프로젝트 등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가 남아있어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대세 된 전기차... 내구성·안전확보 중요”

김재웅의 봄봄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안전' 심포지엄 화제·급발진 등 소비자 불안감 ↑ 제도개선·안전교육 등 대책 마련

"전기차가 더 안정적으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화재나 급발진과 같은 안전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불안한 소비자를 설득해야 한다" 최근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안전'을 주제로한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지난 3일 방한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는 이미 전기차 안전을 검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전기차 보급률이 5%를 넘은 자타공인 전기차 '테스트 베드' 제주. 자체 조사 결과 전기차 사용자 중 정비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데에 착안, 2020년부터 190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통합 유지보수 실증기반 구축사업'을 시행 중이다.

제주연구원은 전기차 안전을 확인할



전기차의 전비 측정 및 분석, 주행 재현을 통한 전기차의 성능을 평가하고 있다

수 있도록 다양한 자체 검증 시스템을 갖췄다. 전기차 주행 재현 장비와 배터리 모듈 및 팩 성능평가 시스템, 내폭형 환경 챔버 등이다.

이들 장비는 전기차를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전비와 출력이 제대로 나오는지, 또 배터리를 분리해 극한의 환경에서 성능이나 내구성을 측정하기도 한다.

가장 특별한 사업은 '실주행 전기차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다. 제주에서 운

행 중인 200여대에 장착해 모든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고 있다.

KITECH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까지 수집한 주행 데이터만 3.6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2021년 2월 처음 시작해 2년여만이다.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기 위한 서버와 담당자도 따로 두고, 솔루션도 자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KITECH은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나 급발진 사고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해

당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주행 데이터는 전기차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데도 활용한다. '전기차 및 주요 전장품의 노후화 평가·분석 기술', '샤시디나모를 활용한 차량의 고장 및 이상감지 기술', '배터리 사이클러를 활용한 수명진단 기술' 등이다.

이들 기술은 전기차 전후방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지원에 활용된다. 예를 들어 실주행 데이터 모니터링 기술과 고장진단 분석 기술, 부품 수명 등 데이터를 통해 활용해 리퍼비시 제품 개발에 활용하는 등 중소·중견 부품 기업으로 이전에 상용화하는 방식이다. 지역 정비 업체 246명에 18회에 걸쳐 전기차 정비 및 안전관리기술 교육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전기차진단기술센터 흥영선 센터장은 "전기차에 대한 각종 검사, 진단·정비, 수명예측 및 유지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센터가 확보한 전기차 생애주기 DB를 바탕으로 향후 수소전기차 주요부품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미래자동차 산업구조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

LG화학

스타트업 환경 개선 안전한 일터 만든다

LG화학이 스타트업의 환경안전 개선을 도우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LG화학의 안전 환경 전문가들이 스타트업의 생산 공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점검에 나선 것이다. 갖춰야 할 안전 장비는 무엇인지, 설비는 어떻게 배치해야 안전할지 스타트업 담당자들에게 현장에서 원포인트 레슨으로 노하우가 전수됐다. 마치 골목 상권의 식당이 새 단장하듯이, 맞춤형 솔루션을 받은 생산 공장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 간다. 5월부터 전국 곳곳의 스타트업에서 벌어질 모습이다.

7일 LG화학은 5월부터 LG전자와 함께 제조업 기반 스타트업 사업장의 환경 안전을 개선하는 SafeCon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SafeCon은 안전(Safety)과 연결(Connect)의 합성어로 '함께 온전히 안전에 연결'한다는 의미다.

'SafeCon' 활동을 통해 스타트업들은 LG화학과 LG전자로부터 ▲교육 ▲컨설팅 ▲변화관리 ▲장비 지원을 받으며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LG화학과 LG전자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금융·공간·인재육성을 지원하는 LG소셜캡스 플랫폼을 통해 환경안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한 전국의 제조업·생산 기반 스타트업을 선정했다.

폐어망 재활용 기업인 '넷스프'와 친환경 장난감과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플레이31', 친환경 제품 판매점 '에코언니아', 전자기기 재활용 등 IT자산처리 업체 '리맨', 그리고 친환경 수지와 용기를 제조하는 '그린베어'까지 총 5개 업체가 환경안전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허정윤 기자 zelkova@

SK시그넷, 전기차충전 연구·시험 '원스톱'

부천시에 'R&D 통합 센터' 개소 글로벌 No.1 기업 도약 발판

SK시그넷이 오는 8월 부천시 도당동에 'R&D 통합 센터'를 개소한다. SK시그넷은 이곳에서 제품의 설계, 개발, 시험 등 전 과정을 수행하며 독자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리딩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부천 R&D 센터는 전기차 충전기 제품 개발을 위한 최적의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SK시그넷의 첫 번째 통합 연구개발 센터다. 전기차 충전 기술에 관한 연구와 제품 테스트를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곳에서 SK시그넷은 충전기 핵심 부품인 파워모듈 설계부터 충전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과 품질 검증 등 전기차 충전기 개발 시험의 전 과정을 수행

해나갈 예정이다. SK시그넷은 미국 초고속 충전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신규 R&D 센터 구축을 통해 여의도·일산·안양·수원에 흩어져 있던 연구소 및 테스트 랩(Test lab) 인력 약 150여 명이 한 곳에 모여 R&D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됐다. 이곳에선 제품 및 펌웨어·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충전기 유지보수 담당 인력 뿐 아니라 품질 관리 등 다양한 부서의 기술 관련 인력들이 근무하게 된다. 충전기 이용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제품 개발 단계

에서부터 고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CS 전담 부서도 함께 입주해 R&D 부서와 협업한다.

SK시그넷 신규 센터 구축은 '글로벌 No.1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R&D 투자 확대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 약 50여 종의 최신 R&D 장비와 계측기 등의 재고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이를 운용하기 위한 전력 공급의 적합성, 중장기적 센터 확장성까지 고려하여 약 1300평(4330㎡)의 넓은 공간을 확보한 부천시 도당동 지상 4개 층 단독 건물에 터를 잡았다.

/허정윤 기자

“순찰부터 환경관리까지”... 이통3사, 자율주행 선점 치열

SKT AI 솔루션 전방위 적용 추진
 커넥티드카·UAM 등 사업 확대
 KT V2X 단말·인프라 기술 개발
 LGU+ 2026년 리빙랩 실증 참여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자율주행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통신사들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역량 강화에 나서는 이유는 향후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SKT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AI(인공지능) 솔루션을 전방위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커넥티드카(통신망에 연결된 자동차)부터 도심항공교통(UAM)에 이르기까지 자율주행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인 C-ITS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서울시 상암 지역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 구축을 마무리했다.

SKT의 자율주행 서비스 중 ‘AI 순찰로봇’은 연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 선도업체인 뉴빌리티, 융합보안 서비스 전문회사인 SK윌더스와 손잡고 ‘자율주행 AI순찰로봇’을 공동 개발하고 사업화에 나섰다.

SKT의 AI 영상인식 및 전송기술을



LG유플러스 미래모빌리티기술팀이 도로노면청소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기술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라이드플렉스’의 자율주행 차량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뉴빌리티가 보유한 자율주행 로봇기술 및 원격관제 솔루션에 적용하고, SK윌더스의 보안 솔루션 및 영업 인프라를 활용해 AI순찰로봇 서비스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상용 서비스를 앞당기기 위해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SKT는 뉴비에 자체 개발한 실시간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기술 및 비전AI 영상분석 기술이 탑재된 관제시스템을 적용하는 한편 야간 순찰용 저조도 360도 회전 카메라를 새롭게 장착했다.

KT는 C-ITS와 관련된 자율주행 기술 ‘Smart V2X(차량사물통신)’을 준

비하고 있다. 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V2X(차량사물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을 비롯해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는 경량 OBU(차량탑재장치) 등 V2X 단말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 도로 위 노면지국(RSU)과 네트워크를 사용해 도로 인프라 정보를 제공하는 V2X 인프라 기술도 개발 중이다.

KT는 판교 제로시티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선행사업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인프라와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 판교 제2테크노밸리 스마트산단 구축사업자

로 선정된 후 사업 구축을 완료했다.

KT는 또 한 지자체와 대중교통용 자율주행 버스 구축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자율주행 기반 도시환경관리 서비스 연구개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협약을 완료해 협력사들과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은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번에 수주한 자율주행 기반 도시환경관리 서비스 연구개발은 24시간 주행 가능한 자율주행 차

량을 통해 도로 노면 청소, 미세먼지·공기 정화, 전염병 방역·소독 등을 수행하는 기술을 연구하게 된다.

LG유플러스는 GS건설과 리텍, 라이드플렉스, 에이스랩, 스페이스인사이트, 쿠오핀, 아주대, KAIST 등 8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도시환경 관리 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디젤차 운행으로 인한 2차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시기능 서비스 체계의 선진화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돌발상황 발생 시 5G 기반 저지연 영상전송 기술을 활용해 즉시 대응 가능한 원격제어와 도로상황에 따른 배차·경로·배회 최적화, 주행이력 분석 등이 가능한 실시간 통합 서비스 관제 솔루션을 개발,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관리의 용이성을 높여야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또 5G 통신에서 양자컴퓨터로도 해독하기 어려운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해 차량 보안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 사업의 핵심인 자율주행 차량 관제 시스템은 차량통신기술 표준화가 WAVE와 C-V2X 중 어느 쪽으로 진행돼도 연동하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美 시장에서 ‘현대차·기아 RV 돌풍’ 분다

전년 비 15.2% ↑ 총 14.4만대 판매
 RV 차량, 전 차종 판매량 중 72.4%
 신타페·텔루라이드 가장 인기 끌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북미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은 레저용 차량(RV)의 인기도 한몫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1분기에 이어 4월에도 성장세를 유지하며 미국 시장 강자인 일본 브랜드 도요타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특히 수익성 모델인 RV 차량의 인기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15.2% 증가한 14만 4874대를 판매했다. 현대차는 14.9% 늘어난 7만 6669대, 기아는

15.5% 증가한 6만 8205대를 팔았다. 제네시스도 16.2% 증가한 5857대를 판매했다.

이같은 흥행 중심에는 RV 모델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현대차그룹 IR 실적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지난 1~4월 미국에서 RV 차량을 38만 1606대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한 수치다. 또 세단 등을 포함한 전 차종 판매량(52만대)의 72.4%를 차지할 정도로서 RV 차량의 인기를 짐작케 한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기아의 차량 중에서 연간 기준으로 RV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 71.3%를 뛰어넘어 ‘현대차·기아 RV 돌풍’이라 할 만하다.

현대차가 가장 많이 판매했던 모델은 신타페로 나타났다. 신타페는 지난 1~

4월 미국 시장에서 3만 9479대가 판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늘었다. 기아는 텔루라이드가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었다. 미국 현지 공략 모델인 텔루라이드는 3만 5745대가 판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9% 상승했다.

미국 자동차 매체인 KelleyBlueBook은 ‘2023년 최고의 가족용 차’에 현대차 아이오닉5, 신타페, 팰리세이드, 기아 텔루라이드를 선정했다. 현대차그룹은 4종이 선정돼 각각 3종이 선정된 일본 도요타와 혼다를 눌렀다.

다만 현대차·기아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영향으로 전기차 분야에서는 좀처럼 힘을내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 5는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2323대 팔렸고 기아 EV6는 1241대로 53% 줄었다.

/양성운 기자 ysw@

CJ대한통운, 亞-몽골 잇는 물류 영토확장

동영해운과 북방물류 공동개발

CJ대한통운이 아시아 3개국과 몽골을 잇는 북방지역 물류 영토확장에 나선다.

7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동영해운과 ‘북방물류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몽골 간 멀티모달(Multi Modal) 서비스를 활용해 아시아 3개국 고객에게 몽골 수출화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멀티모달’이란 해상, 육상 등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복합운송이라고도 불린다.

양사는 CJ대한통운의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3개국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을 이용해 중국 신강항까지 해상운송한다. 이후 중국횡단철도(TCR)과 몽골횡단철도(TMGR)를 이용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까지 육상운송하게 된



CJ대한통운 강병구 글로벌 부문장(왼쪽)이 동영해운 백승교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다. 여러 나라의 화물을 모아 규모화해 운송하는 만큼 더욱 경쟁력 있는 운임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향후 두 기업은 중국,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 유라시아 대륙 북방지역 추가 운송경로와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화물 발송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운송과정 일체를 전담해주는 엔드 투 엔드(End To End) 서비스 등 상생협력 관계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캐딜락, 브랜드 최초 순수 전기차 출시

‘얼티엄’ 기반 최초 모델 리릭



캐딜락 리릭 전면.

캐딜락이 올 하반기 브랜드 최초 순수 전기차 리릭의 출시를 앞두고 스포셜 뉴스레터 구독자 모집을 시작한다.

리릭은 GM의 전동화 전략을 선도해 나가는 상징적인 모델로, 1912년 첫 전기 트럭 생산 이후 현재까지 GM의 112년 전기차 헤리티지가 집약된 첨단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얼티엄(ULTIUM)’을 기반으로 탄생한 최초의 모델이다.

북미시장에 먼저 공개된 리릭은 12개의 모듈로 구성된 102kW/h급 대용량 배터리와 듀얼 모터를 탑재한 사륜구동

(All-Wheel Drive, AWD)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최대 출력 약 500마력, 최대 토크 약 62kg·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 캐딜락 자체 테스트 결과 완충 시 약 494km의 주행거리(북미시장 인증 기준)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한다.

리릭의 상징적인 블랙 크리스탈 그릴은 수직으로 배열된 슬림 LED 헤드 램프와 조화를 이루어 캐딜락의 차세대 브랜드 스타일링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화려한 라이팅 퍼포먼스를 통해 리릭만의 차별화된 EV 디자인을 표현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카카오, 다음 독자적 의사결정 조직체계 설립

(Daum)

검색·미디어 등 핵심 사업 중심 도약

카카오가 포털 다음(Daum) 사업을 담당하는 사내독립기업(CIC; Company in Company)을 오는 15일에 설립한다고 7일 밝혔다.

카카오는 검색 및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서 다음 서비스의 가치에 더욱 집중하고 성과를 내고자 다음사업부문을 CIC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신속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

체계를 확립해 다음 서비스만의 목표를 수립하겠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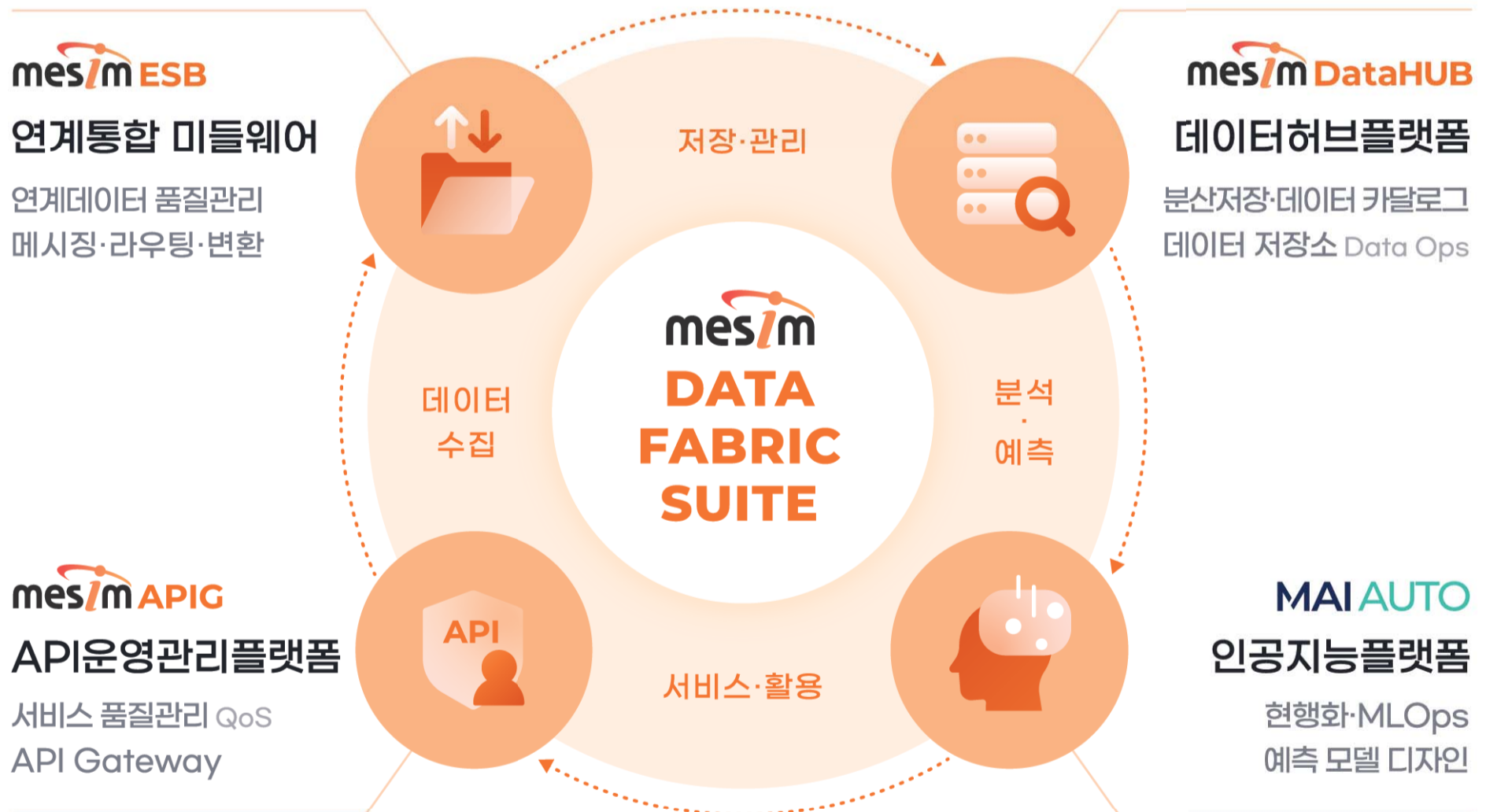
다음 CIC는 검색, 미디어, 커뮤니티 서비스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AI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기술 선도적 서비스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다음 CIC 대표는 황유지 현 다음사업부문장이 맡는다. /최빛나 기자 vitna@

데이터 연계통합(ESB/IoT/망간) SW 3,000여 기관 공급
최고 품질·성능·실적·기술



DX 및 지속가능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Data end2end 기반 핵심기술

DATA FABRIC SUITE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수급대상 예측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디지털트윈기반 교통상황시스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계기관 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통 빅데이터 분석 표출 시스템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등



본사 0664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2 메타빌드빌딩 연구소 06708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08 메타빌드연구소
T 02.598.3327~8, 3340 F 02.598.3329 E support@metabuild.co.kr www.metabuild.co.kr

‘오너리스크’ 키움증권, 주가 20% ↓... 개미는 불매 움직임

기관들, 10여일째 주식 순매도 중 시총 2조3335억, 약 4000억 증발 논란 확대, 김익래 회장 ‘사퇴’ 하고 주식매각대금 605억 사회에 환원 키움증권 조사 착수 등 ‘악재’ 겹쳐



/키움증권

키움증권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한 오너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주식위탁매매 부동산의 1위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기관들이 10여일째 키움증권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도 불매 운동에 나서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는 불과 10여일만에 지난달 중순 연고점 대비 20% 가량 떨어졌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키움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2% (1100원) 하락한 8만9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키움증권의 주가는 지난 19일부터 4일까지 11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타고 있다. SG발 주가 하락 사태가

표면화한 지난달 24일 마감 금액은 10만4700원이었으며, 최근 한 달간 고점은 10만9400원(지난달 14일)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4일 키움증권의 주가는 최근 고점대비 20% 가까이 하락했다.

시가총액은 지난달 21일 2조7451억 원에서 이달 4일 2조 3335억 원으로 약

4000억 원이 증발했다. 지난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연기금·금융투자·보험·투자자신탁 등 기관투자자들은 639억7967만 원 어치를 매도했다.

지난해 키움증권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한 작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주식 시장점유율(누적)은 19.6%이다. 이는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등 주요 5대 증권사의 점유율과 비교해 2배 가량 높은 수치로 업계 1등의 자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SG발 주가 조작 의혹이 깊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불매 운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김 회장은 지난 4일 회장직을 사퇴하고, 주식 매각대금 약 605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 선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SG발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조명되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이익을 본 사람이 범인이라면서 김 회장을 배후로 지목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저의 주식 매각에 대해 제기된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으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주와 국민에게 모두 부담을 주는 일이라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키움증권 측이 김회장의 연루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김 회장의 오너리스크 해소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지난 3일 금융당국이 키움증권에 대해 차액결제거래(CFD)관련 조사에 착수하면서 악재가 겹쳤다.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은 키움증권의 CFD 서비스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내부 임직원 정보 이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은 주가폭락 사태 2거래일전인 지난달 20일 보유하던 다우데이터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 거래로 매도해 현금 605억원을 현금화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키움증권의 시장포지션은 견고하고 증권사들의 주가 전망에 대한 긍정적 의견도 당장 변하지 않겠지만 이번 SG사태 이후 시장에 불거진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하반기, 불확실성 견히고 실적회복 예상”

metro 관심종목 삼성전자

증권사 “2분기 말부터 ‘감산’ 효과 장기적으로는 배당성향 높아질 것 울트라 모델 중심 S23 매출도 호조”

반도체 업황이 점진적 개선 구간에 진입하면서 삼성전자 매수 접근이 타당한 시기로 분석됐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감산 효과가 2분기 말부터 하반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유지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46% 빠진 6만51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다. 세계 1위 메모리업체인 삼성전자는 25년만에 감산을 공식 선언했다. 반도체 업계 불황에 대비하고자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당

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95.5% 급감한 6402억원이다.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4분기 낸드(NAND, 고단화)에 이어 올해는 디램(DRAM, 미세화) 손실까지 더해져 1조원 규모의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파운드리에 경우에도 게이트올러라운드(GAA) 2세대를 개발 중이지만 전방 수요 부진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증권사들은 감산효과가 2분기 말부터 드러나면서 하반기에 실적회복에 성공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감산을 통한 공급 축소 효과가 2분기 말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하반기 극대화될 것”이라며 매수 접근이 타당한 시기라고 분석했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도 “하반기에는 매크로(거시 경제) 불확실성이 견히면서 점진적인 실적 회복이 예

상된다”며 “장기적으로 배당성향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실적이 크게 악화됐음에도 기존 배당지급액을 유지하면서 배당성향은 74%에 이를 전망이다. 글로벌 긴축 기조가 완화에 따라 소비경기가 다시 회복되면 절대 배당액이 다시 증가하면서 배당성향도 높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신모델의 호조 영향도 주목된다. 김영권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울트라 모델 중심의 S23 호조로 모바일 경험(MX)과 디스플레이(SDC) 수익성이 확보되는 등 반도체 분야의 부진이 상쇄됐다”며 “불황이 지속됐지만 S23의 진가가 발휘된 1분기”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화투자증권과 BNK투자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각각 8만2000원, 8만7000원으로 유지했다. 투자자의견 역시 ‘매수’로 동일하다.

/신하은 기자 godhe@



호반건설의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 조감도.

부동산 불황 속 호반건설 완전분양 신화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 100% 계약 부채비율 0%,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호반건설이 ‘표정관리’ 중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도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 (1051가구 중 39~84㎡ 493가구 일반분양)가 완판 데서다.

호반건설은 최근 작년 12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 10R구역에 공급한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가 100% 계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미분양을 털어냈지만 집짓 기쁜 표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업계가 미분양과의 전쟁으로 곤혹을 치루는 상황이어서다.

호반건설은 20여년 동안 미분양아파트를 경험해보지 않은 업체로 꼽힌다. 매년 1만여가구를 웃도는 아파트사업에도 완전분양 신화를 써왔다. 따라서 업계 최초 ‘부채비율 0%’, 하도급대금 현금지급을 실현해 왔다. 건설업계 시공능력평가도 3군에서 1군으로, 전체 10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물론 호반이 일부 지역에서 선호 단지 위주로 실거래 및 매매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전체 하락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광명단지는 호반에게 특별한 사업장이다. 호반의 성장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업역 확대를 꾀한 이래, 수도권에서 1000여가구가 넘는 사업장은 광명이 처음. 수주 당시 대형건설사가 모두

참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단지였다. 대형업체와의 경쟁에서 따낸 수주였던 만큼 성취감도 컸다. 하지만 분양 시기에 이르러서 코로나19 사태 속 미분양 폭증이란 초유의 환경을 맞았다. 미분양아파트가 8만여가구를 육박해 시장이 얼어붙고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했다.

미분양 10만가구 시절에도 100% 분양신화를 이룬 만큼 다른 업체들이 분양시기를 저울질하는데도 브랜드를 믿고 나섰다. 결과는 최근 미분양을 모두 털어내는데 성공했다.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의 완판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상품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합리적인 분양가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 것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했다.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의 완판은 호반건설이 연내 공급할 예정인 용산 국제빌딩 5구역, 개봉 5구역 등 서울 도시정비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 완판은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에서도 ‘호반써밋’의 상품성이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광명 뉴타운의 명품단지가 될 수 있도록 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서울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 4주 연속 둔화

매매수급지수는 9주 연속 상승세

최근 급매물 소진 지역이 늘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4주 연속 둔화했다. 매매수급지수는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5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07%)보다 0.02%포인트(p) 축소되면서 4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 노원구

(0.04%→0.02%)가 중계·상계동 중저가구축단지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 도봉구(-0.29%→-0.19%)는 창·쌍문동 대단지, 성북구(-0.16%→-0.11%)는 정릉·길음동, 광진구(-0.15%→-0.13%)는 광장·구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서남권에서는 강서구(-0.19%→-0.17%)가 등촌·염창동, 금천구(-0.13%→-0.12%)는 독산·시흥동 대단지, 구로구(-0.21%→-0.15%)는 개봉·구로동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서북권에서는 은평구(-0.10%→-0.08%)는 응암·수색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

락세가 지속됐다. 동남권의 경우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던 송파구(0.04%→-0.01%)가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주 상승 전환한 강남구(0.02%→0.03%)와 서초구(0.03%→0.02%)는 주요 단지의 저가 매물 소진 이후 매물가격이 오르며 상승세가 지속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도·매수 희망가격 격차로 하락세가 지속중이나 일부 지역에서 선호 단지 위주로 실거래 및 매매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전체 하락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 축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매수급지수는 9주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환 기자 kdh@

“시간·장소 불편 없이 ‘피부 홈케어’ 도와드릴게요”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앳홈’ 양 정 호 대표

그는 요즘 온통 피부에 빠져 있다. 인터뷰 초반부터 꺼낸 피부 이야기들을 듣고 있자니 그의 얼굴에 계속 눈이 갔다.

2018년 창업해 1인가구 등을 겨냥한 소형가전 등을 중심으로 한 홈라이프 솔루션 컴퍼니를 지향하고 있는 앳홈의 양정호 대표(사진) 얘기다.

양 대표는 올해 우리 나이로 서른이 된 젊은 CEO(최고경영자)다. 가전 제품에 이은 핵심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화장품을 포함한 토털 스킨케어 솔루션을 통해 창립 5주년을 맞은 올해를 ‘제2의 창업’으로 삼고 있는 그를 최근 내 집을 마련하고 확장·이전한 서울 성수동의 앳홈 본사에서 만났다.

창업 첫 해 62억원 매출을 기록한 앳홈은 올해 1000억원을 목표로 있다. 조만간 직원수도 100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곁을마를 배우고 이제 막 제대로 걷기 시작한 다섯 살짜리 회사의 쫓성적표다.

“사람들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피부다. 좋은 피부는 인간의 욕구이기도 하다.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을 병원이나 피부관리를 하는데 쓴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싶었다. 전문가가 없이도, 좀더 저렴한 가격에 피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국내외 대기업들이 내놓은 백색가전 등 기존에도 수 많은 제품이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우리가 내놓은 소형가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건 그만큼 뭔가 불편했고 또다른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양대표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첫 아이템으로 소형가전을 선택한 것은 고객들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사명감 때문이다.

앳홈의 효자상품인 미니건조기 ‘미니믹스(Minix)’가 대표적이다. 미니건조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제품은 건조, 탈취, 살균, 의류관리까지 가능한 제품에 가격까지 저렴한 1인가구 등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2021년부터 본격 판매를 시작한 로봇청소기 ‘클리엔(Clien)’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 가전사와 중국산의



2018년 창업... 첫해 62억 매출서 올 1000억 ‘목표’, 생계위해 온라인으로 LED마스크 팔며 ‘사업 DNA’ 키워 소형가전서 화장품·디바이스 등 피부 관리 솔루션까지 올해 ‘제2의 창업 해’, 글로벌 공략... 초심 잃지 않을 것

틈바구니에서 현재까지 5만대 이상, 누적 매출로 200억원 넘게 팔린 데도 다 이유가 있다.

첫 아이템 ‘소형가전’과 두번째 아이템 ‘피부관리 솔루션’은 어쩌면 양대표에게 운명이었다.

“군대에서 전역을 한뒤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돈을 벌어야했다. 그래서 자본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첫 아이템은 LED마스크였다. 당시 대기업이나 유명 브랜드 제품도 많았지만 시장 조사 끝에 효과가 유사하고 가격이 싼 중소기업 제품을 찾을 수 있었다. 타사 가격보다 4분의1 수준인 20만원대였다. 그 회사는 좋은 제품을 만들면서도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 돈이 없으니 먼저 제품을 주면 판매하고 보름 후에 정산해주겠다고 제시했다. 제안을 받아주시더라.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웃음)”

하루 18시간을 매달리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노하우를 익혔다. 사무실도 없이 집에서 시작한 LED마스크 판매는 하루 100

개씩 나가는 날도 있었다. 잘될땐 월 5억원의 매출을 찍기도 했다.

“처음엔 어떻게 판매할 지 몰라 남는 것도 없었다. 그러다 정상규모에 오르면서 사업이라는 것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고객들도, 내게 제품을 대준 사장님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다. 나도 행복했다. 그때 회사를 만들어 제대로 키워보아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양 대표는 이듬해 과감히 회사를 차렸다. 집에서 밖으로 나와 1인 창업의 길에 본격 접어든 것이다.

그의 머리와 마음속엔 ‘집’과 ‘가족’이 늘 떠나질 않는다.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다 많이 다치셨다. 병간호와 가족의 생계를 어머니께서 책임지셨다. 엄마, 아빠가 불쌍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지금 돌아보니 내겐 가난이 행운이었다. 부족함이 있었기에 남들보다 열심히 살 수 있었다. 그게 감사하다.”

양 대표는 사실 LED마스크를 팔기 전에 생계를 위해 30년 문어 장인으로 부터 물건을 받아 온라인에서 문어를 판매하기도 했다. 경험도 없이 먹거리를 파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돈은 못벌었지만 그래도 밀지는 장사는 아니었던단다. 큰 수업료 없이 공부를 한 셈이다.

그가 창업을 하면서 회사 이름을 ‘앳홈(ATHOME)’이라고 지은 것도 ‘집 다운 집’에 대한 갈망 때문이다.

어떤 이는 창고에서 창업을 했지만 양대표는 그렇게 집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소형가전으로 회사가 성장하면서 눈을 돌린 피부 관

련 아이템도 집안에서 애들을 기르고 있는 아내를 보고 내린 결정이다.

“와이프가 육아를 하면서 집안에서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괜찮을까 싶었다. 뭔가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소형가전이 그 중 하나라면 화장품 등 피부 관련 아이템도 홈라이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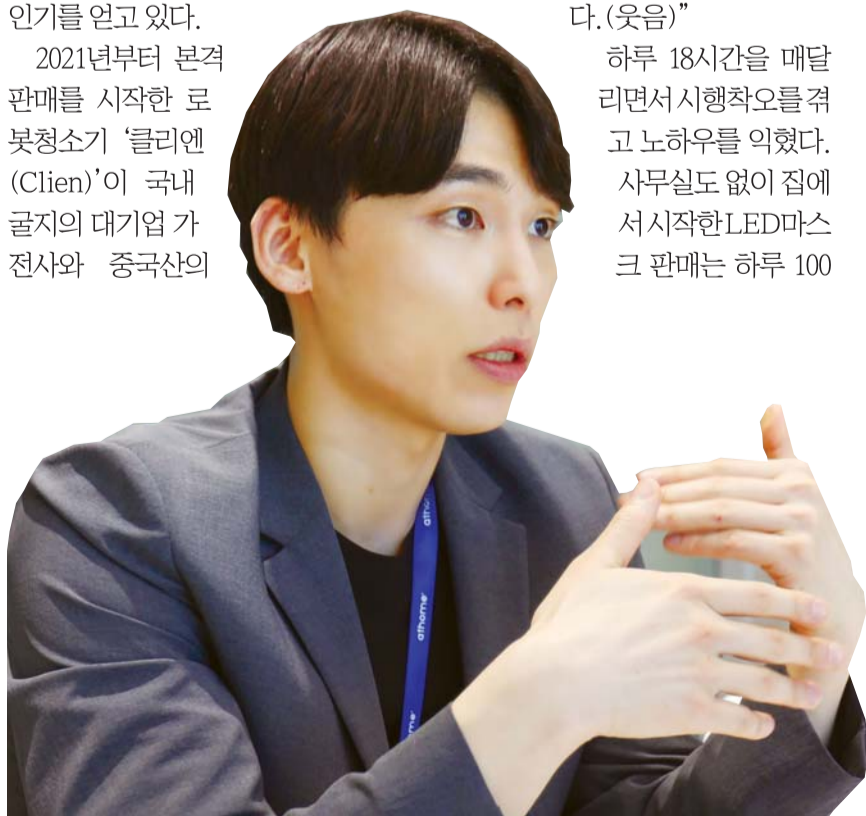
앳홈이 내놓은 제품들을 통해 자신의 아내나 고객들이 적은 돈을 들이고도 집에 있는 시간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는 마음 때문이다.

앳홈은 최근 선케어전문 브랜드 ‘헬로헬리오(elloHeliou)’를 먼저 선보이며 화장품으로 포문을 열었다.

상반기 중엔 메디컬 에스테틱 프로그램인 톰 프로그램(THOME program)을 론칭한다. 이는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전문적인 필(peel) 기술을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피부 관련 디바이스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두번째 창업의 해인 올해엔 국내를 넘어 해외 공략도 본격화한다.

“일본, 홍콩 등에는 우리보다 작은 집들이 더 많다. 해외를 겨냥한 의류관리기 등도 출시할 예정이다. 코스메틱 제품은 해외 진출을 위한 첫 작품이 될 것이다. 미국 법인도 이미 만들었다. 앳홈은 ‘집’이라는 생활공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불편을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회사 구성원, 더 나아가 고객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두고 배려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나가겠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준공 즉시 투입... 지방 투자사 인력난 해소된다

산업부 '퀵스타트 프로그램' 2개社 선정... 총 예산 10억 지자체 등과 컨소시엄 구성

정부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현행 세제·입지·현금 등 인센티브 제공에 이어 초기 인력난 해소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방에 공장을 짓고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이 지연되는 지방 투자기업의 애로 해소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공장 신·증설을 앞둔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이란 지방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기업이 공장 준공 이전인 공장을 건설하는 기간 동안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모집해 교육하고, 공장 준공과 동시에 인력을 투입해 공장이 적기 가동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방투자기업은 지자체, 산학융합

원, 교육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약 한 달간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례 조사에 따르면, 초기 인력난으로 공장의 100% 가동이 지연된 기업의 경우, 약 1~3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수도권 14개사 대상 조사에서, 13개사는 필요인력 대비 평균 21.5%의 인력 미충원이 발생해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었다.

A 기업의 경우 지방 공장 준공시점에 필요한 신규인력 대비 지역 내 인력 채용만은 역부족으로 판단, 사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 중이나, 이것도 여의치 않다. B 기업도 공장 준공에 맞춰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했지만, 인력 부족과 기업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미충원이 발생했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인력 애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미국

조지아주의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산업부는 연두 업무모고에서 지방투자기업의 적기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지아주의 경우 경제개발 프로그램 중 하나로 1967년부터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주정부는 기업이 조지아주에 투자하는 것을 결정함과 동시에, 주정부가 인력 모집부터 교육 프로그램 설계·운영까지 기업과 함께 논의하고 협업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데, 모든 비용은 주정부가 부담한다.

조지아주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유치했다. 우리나라의 기아자동차, SK 이노베이션 등도 조지아주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 인력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가 기획한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의 올해 시범사업은 2개의 지방투자기업을 선정해 채용후보자 모

집, 맞춤형 교육 등에 총 예산 1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선정 기업은 지자체, 산학융합원 등의 도움을 받아 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지역 대학 등을 통해 특화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채용후보자로 선발된 인력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 동안 월 200만원의 교육훈련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해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라며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이 세제, 입지, 현금 등 현행 인센티브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지방투자 유인책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완해,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의 시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국여성벤처협회 오세현 상근부회장(왼쪽)이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박철한 센터장과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벤협

여벤협-전경련중소협력센터

여성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여성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추가로 나선다.

7일 여벤협에 따르면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업 경영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여성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대상으로 비즈니스 분야별 전문위원을 매칭해 심층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 예비창업자 기술 및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여성 벤처기업 분야별 맞춤형 경영자문 및 교육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 홍보, 유망기업 발굴 등을 위한 인프라 활용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여벤협 오세현 상근부회장은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력을 가진 여성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이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의 경영 교육 및 자문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연계지원을 통해 여성벤처기업들이 성장하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천원의 아침밥' 3배 확대... 104개 대학 추가 모집

145개 대학서 234만명 수혜 받아 농식품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키로

대학생들이 1000원을 내고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가 당초보다 3배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을 2차 추가 모집한 결과 총 145개 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저렴하게 제공해 청년층의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잉여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식품부가 학생 1인당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은 1000원만 내면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0일 41개 대학 68만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2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대학교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이 생활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2일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다. /뉴시스

키로 했으나, 호응이 높은 것을 감안 '쌀 수급 안정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고, 2차 추가모집 기간을 2주간 연장한 결과 마감일까지 전국 104개 대학이 신규 신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업 운영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부적격 대학은 없었고, 신규 신청 대학 모두를 선정키로 했다. 이에 기존 41개 대학을 포

함해 최종 145개 대학은 사업 마무리 시점인 11월 말까지 제출한 운영 계획에 맞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천원의 아침밥' 수혜 대상은 처음 68만여명에서 234만명으로 3배 이상 커졌다.

농식품부는 대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15개 시·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사업 참여 대학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참여 대학은 수도권 55개교, 비수도권 90개교가 선정돼 참여하는 만큼 농식품부는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교육부도 올해부터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 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집행 기준 규제를 완화, 사업 선정 대학이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는 더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지자체 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희문 전무(왼쪽)가 세계전자협회 김대환 회장과 'e-모빌리티 산업 발전 및 회원사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중견련

e-모빌리티 분야 발굴·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e-모빌리티 분야 중견기업들의 성장장 동력을 발굴하고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7일 중견련에 따르면 지난 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제전자자동차엑스포 사무국과 공동으로 '2023년 중견기업 NEXTAGE'를 개최했다.

중견련이 지난해 주도해 출범한 'NEXTAGE'는 중견기업·스타트업·기관 간 협업 플랫폼으로 올해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제10회 국제전자자동차엑스포' 일환으로 열렸다.

올해 'NEXTAGE'는 국내 e-모빌리티 산업 발전 및 회원사 협력 확대를 위한 '중견련·세계전자협회 업무협약', 'e-모빌리티 산업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 전문가 발표 등으로 꾸러졌다.

중견련과 세계전자협회는 국제전자자동차엑스포 등 e-모빌리티 분야 중견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 확대 기반 강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토즈스터디카페 가맹본부, 점주에 버팀목자금 배분 강요

39개 사업자서 총 1995만원 받아 공정위, 향후행위금지 명령 부과

토즈스터디카페와 토즈스터디센터 등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된 정부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7일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1995만원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토즈스터디센터 공동투자 가맹점에게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해 총 39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총 1995만원을 받았다.

2001년 설립한 피투피시스템즈는 토즈스터디센터(독서실), 토즈(회의실), 토즈스터디카페(스터디카페), 토즈스터디랩(독서실), 패스트카페(무인카페)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82개 가맹점과 3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

며, 2020년 기준 매출액은 68억9200만원이다.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독서실과 같이 코로나19로 영업제한과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직후 '공동투자 가맹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를 배포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명목 지원금 100만원을 운영계좌에 넣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들이 반발하자 피투피시스템즈는 재차 수령 가이드를 배포하면서 가맹점사업자와 투자계약에 의거해 개별적으로 협의할 것임을 공지했다.

투자계약에 따르면, 투자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피투피시스템즈는 자신의 투자금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위약벌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에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 등 3가지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부산시민 68% “세계박람회 유치 준비 잘하고 있다”

‘1분기 정기 여론조사’ 결과 발표 가덕도 공항 조기 개항 75.9% 긍정

부산시가 시정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2023년 1분기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만 18세 이상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주요 정책 이슈 ▲부산시정 만족도 등 3개 분야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조사 결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분야에서는 응답자 68.3%가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대응을 비롯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4%에 불과했다.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중점을 뒀던 분야는 ▲부산시민

과 국민의 유치 열기 붙임(28.1%) ▲중앙정부의 유치외교활동(26.2%) ▲부산시의 국가별 유치외교 활동(24.9%) ▲대기업의 협력을 통한 유치활동(10.1%) ▲유명 연예인 등 케이(K)컬처를 활용한 홍보 활동(8.3%) 순으로 답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75.9%가 응답했으며, 가덕도 신공항이 조기 개항하면 기대되는 점으로 ▲각종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29.9%) ▲50만 개 일자리 창출(25.1%) ▲24시간 편리한 공항 이용(20.9%) ▲지역 균형 발전(10.6%) ▲글로벌 허브도시 위상제고(9.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주요 정책 이슈 분야에서는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 서부산의료원 건립 추진, 시민안전보험 등 1분기 시

정 주요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도움(이용) 정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다소 낮았으나, 응답자의 75% 이상이 도움(이용)이 된다고 답해 꾸준한 정책 홍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시정 만족도 분야에서는 현재 부산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과 시정 정책 추진에 대한 만족도와 노력 정도, 앞으로 시가 중점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해 조사했다.

응답자들은 현재 부산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에 대해 지난해 4분기(63.8%) 대비 4.4%가 증가한 68.2%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또 부산시의 현재 시정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해 4분기(62.7%) 대비 2%가 증가한 64.7%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부산시가 현재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은 전년 4분기(71.5%) 대비 0.4%P 소폭 떨어진 71.1%였다.

특히 생활 여건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시정 정책 추진 만족도는 지난 2021년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 안정(45.9%) ▲청년 일자리 확충(23.3%) ▲출산·양육 지원 강화(13.3%) ▲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11.8%) ▲주거 환경 개선(5.5%) 등의 순으로 답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부산시를 믿어주시는 만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 홍보에도 적극 나서 부산시의 좋은 정책들을 부산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심재만 기자

metrobusan4@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주시

서천-원당천 보행로 준공

경북 영주지역 빛꽃 산책로로 유명한 서천과 원당천을 연결하는 보행로 공사가 준공돼 힐링 산책로로 거듭났다.

시는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천 합류지점~원당천 조암교 960m(테크로드 길이 442m, 흙콘크리트 길이 518m)구간의 보행로를 연결하고 30여개 보행등 설치를 완료해 시민 보행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한편, 시는 원당천 상류지역 용암교~망월교~철탄산~서천교 구간 산책로 조성 사업도 진행한다. /영주(경북)=김동국 기자 kdg7677@

구미시

프리미엄 영호진미 육성 나서

구미시(시장 김장호)가 프리미엄 영호진미 생산단지 육성에 나선다.

프리미엄급 영호진미 생산단지 100ha를 육성해 고품질 쌀 재배 교육, 재배 포장 검사, 벼 수매시에 단백질검사, 제현물 검사를 거쳐 브랜드 쌀을 생산할 계획이다.

영호진미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해 최고 품질 쌀로 선정됐으며,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고 부드러운 질감을 지닌 쌀이다. 또한 질소 비료를 감비해 밥맛을 더 좋게 유지하고 품질을 한단계 더 향상시킨 쌀을 말한다.

/구미(경북)=류희철 기자 rhc1369@

영천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협약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응원 대회 및 토론회에 참석해 대구시, 환경부, 대구시 동구, 경상북도, 경산시, 군위군, 칠곡군, 국립공원공단 등 8개 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팔공산에 대한 국립공원 승격과 승격 이후의 체계적인 공원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탐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원사업 시행,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영천(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하동군

하동세계차엑스포 개막

하동 차(茶)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차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2023하동세계차엑스포가 31일간의 대장정에 올랐다.

엑스포는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라는 주제로 오는 6월 3일까지 하동스포츠파크(제1행사장)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제2행사장) 일원에서 열린다.

엑스포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개최사를 맡은 박완수 도지사는 “하동 차의 진수를 알리며, 미래 차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하동 야생차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여수시 경도 해양관광단지.

/여수시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

기한 2026년 4월 30일까지
투자 금액기준 10억으로 상향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기한이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고, 투자 금액기준도 10억 원으로 상향된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는 2029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들여 경도를 남해안 관광 거점이자 동북아 해양관광의 허브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3

년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후 지난달 30일로 시행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일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촉진 등을 위해 경도와 제주, 인천 송도, 강원 평창 알펜시아 등 4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했다.

이와 함께 투자금액 기준을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변경 고시했다.

여수시는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전남도와 법무부에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 성명서 발표

평혜·편파왜곡 중단 요구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은 지난 4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관련한 특별법에 대한 더 이상의 편혜와 편파 왜곡주장을 중단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다같이 화합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육정미 의원을 제외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이 의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는 2014년 5월 대구 군공항이전건의서가 제출된 지 햇수로 10년 만의 일로 500만 대구·경북민이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피눈물로 호소한 값진 결실인데 일부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와 자의적인 주장으로 탄지를 걸면서 500만 대구·경북민에게 불안과 새로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3.102km² 해제

국회·중앙부처 적극 협조로
당초 해지구모서 대폭 늘어

남해군은 최근 환경부가 개최한 ‘제137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남해군에 속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3.102km²를 해제하기로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0.03km²를 해제하기로 했던 것에서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남해군·남해군의회·상설협의체 등 민관이 합심해 군민들의 숙원 요구 사항을 꾸준히 개선해 왔고, 국회와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 거둔 성과라는 평가다.

남해군은 2019년부터 의회 및 상설협의체와 함께 공원 구역 내 지역주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고 시급한 공익사업 추진하기 위해 국립공원 구

역조정 타당성 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회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관련 협의를 해왔으며, 대체 편입부지를 확보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협의의 진행 끝에 환경부는 기존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목도, 구들여, 백서 등 국가 부지를 대체 편입지로 지정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해제예정 구역은 상주금산지구 125필지 1.262km², 남해대교지구 110필지 1.840km² 등 총 3.102km²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5월 중 공원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안동병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선정

보건복지부, 올 2개소 추가 공모사업

경북도는 지난 5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 공모에 안동병원이 최종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총 14개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을 목표로 세운 가운데 현재 전국 8개소가 선정됐으며, 올해 2개소 추가 공모사업에 안동병원이 선정됐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동시협진을 실시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신속한 치료를 제공한다.

경북도는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도비 3억4백만 원을 투입해 오는 7월 센터 운영을 목표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센터는 응급실 내 일반환자 이용공간과 분리·구획된 정신응급환자 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된 안동병원 전경 사진.

용 병상 2개를 마련하고, 전담 전문인력 5명(전문의 2명, 전담 간호사 2명, 행정인력 1명)을 배치한다.

또 24시간 상시 대응체제를 갖추고 최대 3일간 관찰병상 체류 및 추가적 내·외과 진료를 시행하며, 정신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하게 된다.

최은정 경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공모사업 선정으로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초기 대응과 집중치료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동(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자장면·삼계탕 먹고, 시밀러룩 입고, 분조카도 함께가요”

〈비슷하게 맞춰 입는 옷〉

〈분위기 좋은 카페〉

반려동물 산업 다양·고급화

반려동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이 해당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2015년 1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4000억원으로 성장했으며, 2027년 6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문화가 확산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다양해지고 고급화하는 추세다.

반려동물 식문화화를 살펴보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사용한 반려동물 먹거리가 인기가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100% 휴먼그레이드 원재료만 사용해 반려동물 음식을 만드는 하림펫푸드는 출범 5년만에 매출 366억원, 영업이익 19억원을 기록하며 수입산이 팽배한 사료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와 23% 늘어난 것으로, 하림펫푸드가 개척한 프리미엄 사료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통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하림펫푸드는 소비자가 모든 제조공정을 직접 확인하고 사료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체험 투어를 비롯한 반려동물 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 야외에 펫 파크 공간이 조성되어 반려동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스타벅스코리아

하림펫푸드 프리미엄 사료 ‘인기’ “급여 사료 아닌 반려동물과 식사”

커피빈 펫 프렌들리 매장 운영 부천북부역사거리점 등 총 14개점

아카이브볼드 키즈&펫 라인 론칭 헤지스 견주·반려견 ‘시밀러룩’

통해 반려동물을 위한 진짜 음식을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으로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켰다.

하림펫푸드는 건사료에 이어 최근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식사하는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과 유사한 제품군을 론칭했다.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유니자장면, 볼로네제파스타, 떡국, 삼계탕,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이 대표 제품이다.

하림펫푸드 허준 대표는 “해외 수입산이 팽배한 사료 시장에서 식품으로써



BYC에서 출시한 반려견 전용 실내복. /BYC

의 펫푸드를 개척하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한 것이 주효했다”며 “이제는 단순히 급여하는 사료가 아니라 나의 가족인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과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프리미엄 펫푸드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풀무원 자회사 풀무원건강생활도 펫푸드 브랜드 ‘아미오’를 운영하면서 기능성 사료와 간식 등 기능성 제품을 선보였다. KGC인삼공사의 경우 반려동물 건강 전문 브랜드 ‘지니펫’을 운영,

펫푸드를 내놓고 있다.

커피전문점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펫 프렌들리 존’을 마련하는 등 펫팸족을 겨냥한 공간 조성에 나서는 모습이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커피빈코리아다. 커피빈은 지난 2021년 7월 위례2차 아이파크점을 시작으로 반려견 동반 출입이 가능한 펫 프렌들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리뉴얼 오픈한 부천북부역사거리점까지 포함하면 모두 14개 점이다.

커피빈 측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성숙한 반려문화도 필요하다. 커피빈이 그러한 문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펫 프렌들리 매장을 운영하게 된 계기도 알렸다.

지난달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는 투썸플레이스 대구수성못점을 오픈했다. 해당 점포는 넓은 공간과 아이형 인테리어로 모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1층 입구에 펫 파킹 존, 2층 외부 테라스에 펫 프렌들리 존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할리스는 공덕경의선숲길점과 제주연복로점에 펫 프렌들리 존을 운영한다. 펫 프렌들리 존에는 배변봉투와 반려견용 그릇도 비치되어 있어 함께 쉬었다 갈 수 있다.

스타벅스도 지난해 펫 프렌들리 매장 ‘더북한강R’점을 열고, 다양한 캠페인

을 전개해오고 있다. 오픈 당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펫 파크를 선보이고 동물자유연대에 유기동물 지원기금 1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또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을 펼쳐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패션, 명품 브랜드도 반려동물 카테고리에 힘주고 있다. 최근 스트리트 패션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캐주얼 브랜드 아카이브볼드는 키즈&펫 라인을 새롭게 론칭하며 제품 라인을 확장했다. 온 가족이 함께 입을 수 있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를 지향하는 게 특징이다.

앞서 LF의 대표 캐주얼 브랜드 헤지스도 반려견 의류 라인을 선보였다. 클래식한 피케 티셔츠와 케이블 니트, 옥스퍼드 셔츠 등이다. 헤지스의 베스트셀러인 아이코니 시리즈를 반려견 의류 라인으로 확대해 견주와 반려견이 ‘시밀러룩’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속옷 브랜드 BYC는 반려견용 실내복을 선보여 견주들의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1인가구,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반려동물에 지출하는 비용이 커지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대하면서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것이다. 좋은 것을 먹고 입고 싶어하는 펫팸족이 많아지면서 해당 시장은 꾸준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온 “여름 뷰티상품 미리 준비하세요”

온앤더뷰티 ‘여름 뷰티템’ 앞당겨 10% 할인쿠폰, 카드 할인 등 혜택

롯데온이 지난해보다 3주 앞당겨 여름 뷰티 행사를 연다. 뷰티 브랜드들이 여름 신상품을 일찍 선보이며 여름 뷰티 상품 수요가 일찌감치 증가한 점을 고려해 앞당겼다.

롯데온 온앤더뷰티가 8일부터 14일까지 ‘온앤더뷰티 워크 - 여름 뷰티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 롯데온은 올 여름 시즌 신상품을 비롯한 인기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10% 할인 쿠폰 및 최대 10% 카드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여름철 수분 가득한 스킨케어 ‘에스티 로더 NEW 뉴트리셔스 라인’과 ‘산타마리아노벨라 아쿠아디 로즈 라인’의 수분크림 및 클렌징 등의 신상품 등이 있다. 여름 시즌 인기

상품 구매 시 추가 증정품도 제공한다.

온앤더뷰티 클럽 회원을 위한 추가 혜택도 준비했다. 행사상품 구매 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12% 할인 쿠폰 및 엘포인트 최대 5천점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경품 이벤트도 진행해 응모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여름철 두피 관리를 위한 ‘르네휘테르 포티샤 샴푸(200ml)’를 증정한다.

/김서현 기자 seoh@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문을 연 ‘신세계 다이아몬드 갤러리’에서 고객이 나석을 보고 있다. /신세계

신세계百 강남점 ‘다이아몬드 갤러리’ 운영

8층 상품권샵 내 슨인숍 형태 1캐럿·0.5캐럿 2가지 상품 판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4일 다이아몬드 나석을 직접 매입해 운영하는 ‘신세계 다이아몬드 갤러리’ 운영을 시작했다.

갤러리는 8층 상품권샵에 자리하며 기존 골드바 판매와 더불어 상품권샵 내 슨인숍 형태로 운영된다.

나석은 자연에서 채굴된 원석을 가공한 뒤, 주얼리에 별도의 세팅을 하지 않은 상태다. 고객이 구매 후 원하는 디자인으로 세팅할 수 있다. 나석을 직접 매입, 판매하는 것은 백화점 업계에서는 첫 시도다.

신세계 다이아몬드 갤러리에서 판매하는 나석은 국제보석감정사(GIA G

G) 자격을 갖춘 20년 감정 경력의 바잉 전문가가 홍콩 주얼리 페어 등에서 직접 매입한다.

신세계 다이아몬드 갤러리는 웨딩링으로 가장 수요가 높은 1캐럿과 0.5캐럿 2가지 상품을 판매한다.

가격은 SI 1등급 1캐럿 1500만원대, 0.5캐럿 400만원대로 국내외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에 비해 10~40% 가량 저렴해 합리적이다.

특히 세계적인 인증기관 GIA 감정서와 함께 신세계백화점이 한번 더 검증한 추가 감정서도 제공해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

신세계 다이아몬드 갤러리는 강남점에 이어 주얼리 고객이 많은 점포를 중심으로 연내 추가로 문을 열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전자영수증 탄소중립포인트 3000만원 돌파

GS리테일, 참여고객 6개월새 6배 ↑

GS리테일이 오프라인 채널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으로 발급한 탄소 중립 포인트가 3000만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GS리테일에서 전자 영수증 반기를 신청해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받은 고객들은 지난해 9월 대비 올해 3월 기준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지급된 탄소중립포인트는 3천만 원을 돌파했다. 전자 영수증 발급시 받을 수 있는 탄소 중립 포인트는 100원이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녹색생활 실천분야)가 지급하는 친환경 생활 적립금이다. 전자영수증 발급(100원), 텀블러/다회용 컵 이용(300원), 일회용 컵 반환(200원) 등을 실천하면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GS리테일 계열사에서는 전자영수증 발급으로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GS&POINT와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분야) 제도’에 회원가입을 한 후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 접속해 ‘모바일 영수증만 받기’를 설정하면 된다. 이후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더프레시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활동실적이 한국환경공단으로 전송돼 탄소중립포인트가 지급된다. /김서현 기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 3종 가정의 달 신제품 출시

SPC 베스킨라빈스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스크림 케이크 신제품 3종을 선보였다. 베스킨라빈스는 꽃을 주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3종(▲감사한 마음 가득 핑크 카네이션 ▲러블리 플라워 가든 ▲플라워 사이닝 케이크)을 기획했다.

‘감사한 마음 가득 핑크 카네이션’은 분홍색 초콜릿으로 만든 풍성한 카네이션이 특징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제격이다. 남녀노소 선호하는 베스킨라빈스의 대표 플레이버 ‘아몬드 봉봉’, ‘체리쥬빌레’ 2가지 맛으로 구성했다. /신원선 기자

어린이 홀린 '티니핑' 뽀글래... 편의점빵·랜덤박스 '완판'

스타필드 벌룬 페스티벌

관람 20분 제한에도 입장객 넘쳐 최대 7m, 인기 캐릭터 풍선 장식 캐릭터 사진1장 촬영에 1시간 줄서 11번가 완구 전체 판매량 2위 기록

이번 어린이날의 주인공은 '캐치! 티니핑'이었다.

각 e커머스의 완구 선물 랭킹 집계 1위를 휩쓴 것은 물론, 대대적인 캐치 티니핑 테마 페스티벌을 꾸린 경기도 스타필드 하남점은 '대박'을 터뜨렸다.

캐치티니핑은 SAMG 엔터테인먼트 삼지애니메이션의 3D애니메이션이다. 이모션 왕국에 사는 소녀 로미가 지구로 떨어진 마음의 요정 '티니핑'을 찾아 지구로 와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내용이다. 분홍색 일색인 애니메이션이지만 여아, 남아 관계 없이 모두 좋아한다. 90개 이상에 이르는 캐릭터 수와 다양한 완구로 여러개를 모으고자 하는 어린이들이 많아 어린이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등골뽀' '파산뽀'이라는 웃지 못할 별명까지 붙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실내 복합



스타필드 하남의 제3회 스타필드 벌룬 페스티벌 전경. 어린이날 당일인 5일, 스타필드는 캐치 티니핑을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신세계프라퍼티

쇼핑몰 등으로 나들이객이 몰린 지난 5일, SNS에는 경기도 스타필드의 상황이 빠르게 공유됐다. 스타필드를 가득 메운 인파는 보기만 해도 허를 내두를 수준이었다.

스타필드 하남·안성·고양과 스타필드 시티 명지는 7일까지 캐치 티니핑을 대대적으로 내세워 '제3회 스타필드 벌룬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최대 7m에 이르는 인기 티니핑 캐릭터들의 풍선을 장식하고 캐치 티니핑 주제곡을 부르는

싱어롱 이벤트와 기념 사진 촬영 이벤트 등도 함께 진행했다.

티니핑 월드 입장을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관람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한 것은 물론, 티니핑 캐릭터와 사진 1장을 찍는 촬영 이벤트를 위해 1시간 넘게 줄을 서는 등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스타필드는 7일까지 행사를 진행한 후 방문객을 집계할 예정으로, 업계서는 백만명 이상 방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하남 스타필드에 방문한 초등생

학부모 김경수씨는 "주차를 하는 데에 한 시간, 에어벌룬과 사진을 찍는데 3시간을 썼다"며 "워낙 인기있다 보니 비가 오지 않았어도 사람은 많았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선물로도 티니핑의 인기는 대단했다. 지난 2일 SAMG엔터테인먼트는 롯데마트와 함께 어린이날 시즌 한정판으로 출시한 '캐치! 티니핑 랜덤박스' 1차 공급 물량이 완판되면서 2차 공급을 시작했다. 지난달 8일 발매를 시작한 랜덤박스는 일부 지점에서는 판매 시작 일주일만에 품절이 됐다. 티니핑 캐릭터 여름 시즌 의류도 큰 인기를 끌며 지난달 일매출 1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11번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완구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캐치 티니핑 완구 중 하나인 미스틱 하트왕이 전체 판매량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국민뽀'로 불리는 유아 장난감 피셔프라이스 클래식 러닝휴오로, 사실상 어린이날 선물로는 1위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어린이날 선물인 레고도 따돌렸다.

인육한 11번가 장난감 MD는 "최근 장난감 제조사들도 단순한 신제품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다양한 캐릭터를 활

용하고 있다"며 "특히 여아용 완구 시장에서 강력한 수요층을 형성한 캐치 티니핑과 산리오의 인기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S25도 지난달 28일 티니핑셀 86종 중 하나가 든 캐치 티니핑 컬래버 빵 2종을 출시했다. GS25 공식 인스타그램의 신상품 출시 게시글은 통상 댓글이 10개를 넘지 않았지만 티니핑 빵 출시 게시글은 댓글이 80여 개에 이르렀다. 한 네티즌은 댓글로 "포켓몬빵 있어요 대신 이제 티니핑 빵 있어요? 편들순이들 고통 받겠다"고 쓰기도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아동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세가 무섭다"며 "특히 티니핑은 계속해서 에피소드가 나오는 만큼 앞으로도 인기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SAMG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매출 683억원, 영업손실 3억6400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78% 늘었으나 사업확장을 위해 비용을 투자하면서 손실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의 76%인 522억원이 티니핑을 포함한 MD 매출액으로 2022년 247억원 대비 111% 증가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대웅제약 "전세계 당뇨병환자 삶의 질 향상"

엔블로 런칭 심포지엄 '엔블로드' 첫 국산 SGLT-2 억제제 의의 소개

대웅제약이 국산 36호 신약 '엔블로(Envlo)'의 출시를 기념해 가진 심포지엄에 3000여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성황리에 끝났다고 7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 3일 장충동 서울 신라호텔과 대구 라온제나에서 엔블로 런칭 심포지엄 '엔블로드'를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현장 200여명, 온라인 2800여명의 의료진이 참가했다.

대웅제약이 지난 1일 국내에 출시한 2형 당뇨병 치료제 신약 엔블로정은 SGLT-2 억제제 계열이다. SGLT-2 억제제 계열은 혈당강하 효과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부터 체중 감량, 혈압 강하 효과도 있어 글로벌에서 차세대 치료제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엔블로 런칭 심포지엄 '엔블로드'에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고대안암병원의 김신곤 교수가 엔블로의 주요 임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엔블로드는 대웅제약이 출시한 2형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Envlo)'와 길의 의미하는 '로드(Road)'의 합성어다. 한국 최초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인 엔블로가 전 세계 당뇨병 환

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의미로 기획됐다.

먼저, 서울 엔블로드 심포지엄에선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수 교수가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로 주목 받는 SGLT-2 억제제 계열의 치료제를 소개하고, 첫 국산 SGLT-2 억제제 신약 엔블로의 개발 및 차세대 계열로서의 의의를 소개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고대안암병원의 김신곤 교수가 엔블로의 3상 임상 중 병용요법과 더불어 하위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웅제약 이창재 대표는 "국산 신약이 국내 환자는 물론 전 세계 당뇨병 환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글로벌 진출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부산엑스더스카이 1층 아기상어 포토존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폴무원푸드엔컬처

"부산에서 '핑크퐁 아기상어' 만나보세요"

폴무원푸드엔컬처-더핑크퐁컴퍼니 엑스더스카이서 브랜드 캠페인

폴무원의푸드서비스 전문 기업 폴무원푸드엔컬처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엑스더스카이'에서 글로벌 패밀리티 엔터테인먼트 기업 더핑크퐁컴퍼니의 캐릭터 '핑크퐁 아기상어(아기상어)'와 함께 'Baby Shark Sky Station(아하 하늘 정거장)'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브랜드 캠페인은 더핑크퐁컴퍼니의 아기상어 캐릭터를 특별한 오프라

인 공간에서 부산 최초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글로벌 인기 캐릭터 아기상어와 함께 탁 트인 바다와 하늘을 보며 일상의 고민을 해소하고, 희망과 에너지를 전하는 스토리텔링이 접목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폴무원푸드엔컬처가 운영하는 부산 엑스더스카이는 엘시티 랜드마크타워 동 98~100층에 위치한 전망대 시설로, 지난 12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될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촌설령탕 보냉백 등 굿즈 선보여

설령탕 프랜차이즈 브랜드 '한촌설령탕'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굿즈를 출시, 한정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에 선보인 굿즈는 넉넉한 수납공간에 음식 등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냉백으로 가족들과 나들이 및 야외 활동할 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한촌설령탕은 이번 보냉백 굿즈를 매장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9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굿즈만 따로 구매를 원할 경우 19900원에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창립 22주년 NS홈쇼핑 "새로운 도전할 것"

4년 만에 오프라인 기념행사 진행

NS홈쇼핑은 창립 22주년(5월 7일)을 맞아 4일 경기도 판교 사옥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조항목 대표는 20년과 15년, 10년 장기근속자를 포상하고 임직원에게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22살 NS에게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며 "인생도 비즈니스도 끝없는 도전의 여정이기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축하의 뜻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지금 홈쇼핑 비즈니스는 디지털 환경에 걸맞게 환골탈태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하는 시기"라며 "두려움 없이 뛰어들고 나아가면 그곳에서 우리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격려했다.

NS홈쇼핑 조항목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임직원에게 ▲모두가 끝까지 도전하고 실행하겠다는 의지, ▲조직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당부했다.

/신원선 기자

이대뇌혈관병원, 365일·24시간 진료개시

초대 병원장에 신경과 송태진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오는 22일 서울시 강서구 소재 이대서울병원 3층에 이대뇌혈관병원의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초대 병원장에는 뇌혈관질환, 두통 명의로 널리 알려진 신경과 송태진 교수가 임명됐다.

전문센터들도 구축됐다. 이대뇌혈관병원 뇌경색센터장에는 신경과 박무석

교수, 뇌출혈센터장에는 신경외과 조동영 교수, 뇌혈관정위치료센터장에는 방사선종양학과 박영희 교수, 뇌재활센터장에는 재활의학과 양서연 교수 등이 임명됐다. 이대뇌혈관병원은 전문의들이 24시간, 365일 상주하며 뇌혈관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간 유기적 협진으로 운영된다.

/이세경 기자

2022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수상작!



블록버스터 뮤지컬

아메노사우루스

2023. 6. 2(금) - 6. 25(일) 우리금융아트홀

© STUDIO EON / DAEWON MEDIA



예매 | 인터파크티켓 문의 | 02-764-9102

주최 | 대원미디어 주관제작 | 이지기획

마케팅 | 이제이컴퍼니



말다툼 중 '사기꾼'이라 한 경우 명예훼손이 될까?



현대차그룹, 한-태도서국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이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의 공식 의전 차량을 지원한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최영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왼쪽·외교부 차관보)과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이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공식 의전 차량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SKT, AI 스피커 긴급구조 사례 500건 돌파
SK텔레콤은 AI(인공지능) 스피커 누구(NUGU) 기반의 '긴급 SOS' 서비스와 연계된 긴급 구조 사례가 누적 500건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SKT의 AI 돌봄 서비스는 고령화 시대 독거노인들의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긴급 구조는 물론 정보 전달·일정 관리·인지능력 향상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SKT



KT, 고객 초청 '키즈랜드 그라운드 캠핑' 진행
KT가 6일부터 7일까지 수원 KT위즈파크에 KT 고객 60가 족을 초청해 '키즈랜드 그라운드 캠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키즈랜드 캠핑'은 자녀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KT 고객들을 위해 마련한 고객 만족 프로그램으로, 이번 '그라운드 캠핑'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수원 KT위즈파크에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KT



하나금융그룹-CTBC Bank, 글로벌 사업 MOU
하나금융그룹은 대만의 중국신탁상업은행(CTBC Bank)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오른쪽)이 모리스 리 CTBC은행 회장과 함께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유한킴벌리, 창경궁 수목·녹지 복원 추진
유한킴벌리는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울곡로 창경궁 권역의 수목 및 녹지 복원에 동참한다. 유한킴벌리는 창경궁 권역에 적합한 공결수 복원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유한킴벌리 임직원들이 가족들과 창경궁에서 봉사 활동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한킴벌리



김정준 변호사의 생활 법률

친구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친구에게 무심코 "이 사기꾼아, 빌려준 돈 좀 쥐"라고 말했다. 순간적으로 화가나 '사기꾼'이라 한마디 말한 것일 뿐인데, 명예훼손의 죄책을 져야 하는 것일까?
형법 제307조는 '공연'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인식 가능한 상황이면 족하고 그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들의 현실적인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특정인이면 인원의 많고 적

음을 묻지 않으며, 다수인이면 그다수인이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인지를 묻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대해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 8265 판결).
이에 따르면 '사기꾼'이라는 말을 할 때 주변에 단 1명만 있는 경우라도 그 사람에게 의해 '사기꾼'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게 되고, 그러한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성

립되지 않게 된다(이른바 전파 가능성 이론).
본 사안의 경우 대화 당사자들 주변에 있던 그 한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은 친구의 친한 지인이거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꾼'이라는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자라면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형법 제307조에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 17237 판결).
따라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단순

한 모욕적인 표현이나 추상적 가치 판단은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본 사안 '사기꾼'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인가? '빌려준 돈 내놔'라는 말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평가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빌려준 돈 내놔'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단순히 말다툼 도중 흥분해 순간적으로 화가나 '사기꾼'이라 한 것이라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등).
다만 이 경우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돼 모욕죄는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삼성전자, 유럽 최대 항구축제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함부르크 개항축제'서 영상 상영 공항 등 독일 전역에서 부산 홍보

삼성전자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유럽 축제에 힘을 더했다.
삼성전자는 5일(현지시간)부터 7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유럽 최대 항구 축제 '제834회 함부르크 개항축제'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함부르크 개항 축제는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 축제다.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함부르크 개항축제에서 삼성전자가 부산 엑스포를 홍보하는 모습.

특히 올해에는 부산시가 주빈도시로 선정되면서 '대한민국-부산 페스티벌'도 함께 진행됐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현지에서 부산엑스포 유치지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삼성전자도 축제 기간 행사장 공

식 무대 대형 스크린으로 부산엑스포 홍보 영상을 상영했다. 삼성전자 제품 광고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스마트싱스 기반 기기간 연결성과 함께 엑스포 개최지로 부산 강점을 강조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독일 전역의 공항과 주요 도심에서 제품 광고에 부산엑스포 응원 문구를 넣어 유치 활동을 알리고 있다. 또한,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등 주요 행사에서 부산엑스포의 인지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김재용 기자 juk@

이마트, '건강한 숲 만들기' 팔 걷어

'포레스트 투모로우' 캠페인 참여 사업기획, 기부금 조성 등 담당

이마트가 ESG 경영의 일환으로 건강한 숲 만들기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4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동부지방산림청, 미래숲과 함께 '숲 환경 개선 및 산림복지 강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레스트 투모로우' 캠페인으로 명명한 이번 협약에서 이마트는 사업 기획 및 브랜딩과 홍보, 임직



지난 4일 동해시 산불피해지역에서 이마트 임직원들이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이마트

원 봉사활동과 기부금 조성 등을 담당한다. 이마트 임직원들은 같은 날 지난

해 산불 피해지역인 강원도 동해시를 찾아 숲 복원을 위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마트는 산불 피해 지역인 동해시 괴관동에 약 4000평 규모의 부지에 총 36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식수는 양봉협회와 협업해 사라져가는 꿀벌을 불러들이기 위한 밀원수인 아카시아나무 3000그루와 헛개나무 600그루를 선정했다.
이마트는 하반기에 산림복지진흥원과 협업해 이마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산림 인식 개선 교육과 산림정화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산림 복지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건설 '가정의 달' 이벤트 마련
롯데건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 노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내달까지 서울 잠원동 본사를 비롯해 전 현장 임직원 및 파트너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출한 시간대인 오후 3~4시에 롯데리아 햄버거 세트를 새참으로 제공하는 '든든한 간식'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오는 12일까지 사내 프로그램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가족친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김대환 기자 kdh@

SK매직, 정수기 등 구독 사업 박차

송혜교 모델 발탁... 신규광고 론칭
SK매직이 배우 송혜교를 모델로 한 신규 광고를 선보인다.
7일 SK매직에 따르면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로 전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송혜교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생활구독 사업 확대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측은 정수기, 매트리스, 음식물처리기 3가지 소재의 캠페인을 IPTV, OTT(Over The Top) 뿐만 아니라 유튜브,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부음
▲김영록씨 별세, 지형씨(위크온 시뮬레이션 이사) 부친상, 이병성(미래에셋 자산운용 대표이사)·이성환씨(로하스 코리아 대표) 장인상=7일, 신춘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9일. ☎ 02-2227-7500

주요코하마 총영사관은 답하라



김승호의
시선

일본에 살고 있는 옛 친구 얘기를 좀 해 야겠다.

개인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지 모르 겠지만 전혀 사스럽지 않은 이야기다.

친구는 일본에서 25년째 살고 있다. 16 년 전에 결혼했다. 친구는 중국 국적의 아내를 일본에서 만나 두 아이를 낳고 행복 하게 살고 있다.

그는 아내와 함께 한국에 계신 부모님 을 뵙기위해 지난달 말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다. 친구 부부가 한국을 찾는 것은 3년 5개월 만이다. 코로나19로 오가는 것이 여 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친구의 아내가 갖고 있던 한국 비자가 코로나 기간 동안 영사 업무가 원활치 않아 만료됐다.

친구는 아내의 비자를 받기위해 사는 곳과 가까운 주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 관에 갔다. 한국에 가기까지 2주 정도 여유 가 있었다.

영사관 직원은 대뜸 예약 여부를 물었 다. 친구는 예약을 해야하는지도 몰랐다. 영사관 직원의 말을 듣고 부랴부랴 영사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예약이 되질 않았 다. 그래서 다시 문자 직원 왈 4월에 한국 으로 갈 자리(비자)가 꽂혔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비행기표도 끊어놨고 2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친구는 황당했다.

영사관측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재차 물었다.

영사관 직원은 티오(TO)가 다시 생키 는 5월 일정이나 맞춰 예약을 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자칫 예약한 비행기도 취소해야 할 판이었다.

“예약 서류를 보니 가관이였다. 은행잔 고 증명서까지 요구했다. 국민의 배우자가 남편의 나라에 가는데 비자를 받으려면 잔 고까지 증명해야하는 게 납득이 가질 않았 다.” 친구가 어이없어 했다.

부모가 사망하는 등 긴급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규정보로 절차를 밟아야한다 는 영사관측의 답변에 친구는 더욱 화가 났다. 마치 ‘긴급한 상황’까지 만들어야 이

를 참작해 배려해 줄 수도 있다는 말로 들 렸기 때문이다.

한참 실랑이를 하던 와중에 영사관 직원 은 그렇게 급하면 여행사를 통하라고 친구 에게 선심쓰듯 안내했다. 영사관은 안되고 여행사는 된다는 말에 또 울화가 치밀었다. 울며 겨자먹기로 친구는 여행사에 문의 했다. 시간적으로 (비자를 받는 것이)부족 하다면 여행사측은 급행 비자는 가능하 다고 귀뜸했다. 그러면서 가격은 3만4000엔, 한국 돈으로 30만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친 구에게 제시했다. 그것도 비싸면 절차대로 비자를 발급받아야한다고 하면서다.

“일본인은 비자 없이도 한국을 오갈 수 있다. 내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내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 때문 에 이런 차별을 받는 것에 정말 화가 난다. 국민의 배우자가 단순히 외국인이나, 그 와중에 재외국민이 비싼 돈 들여 현지 여 행사의 배를 불러주려고 하는 것은 또 무 슨 경우냐. 이게 나라냐.”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친구의 목소리가 격앙됐다.

결국 친구 부부의 4월 한국행은 성사되 지 못했다. 그제 나라다.

/bada@metroseoul.co.kr

앗, ‘GPT’라는 단어 사용 못하나요?



기지수첩
최빛나
(산업부)

오픈AI가 ‘GPT’라는 단어를 기업들과 공유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 과거 GPT를 출범할 당시 인류에 유익한 방향으로 개발 할 수 있게 기술을 공개를 하겠다는 다짐과 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에 코GPT, 서치GPT 등 막바지 개발단계에 접어든 국내외 기 업들은 오픈AI의 이 같은 도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오픈AI는 자사 공식 홈 페이지를 통해 “GPT를 활용한 제품을 개 발해도 GPT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것”이 라는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에 가까웠다. GPT에 타사의 무임 승차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 여기에 상표권에 대한 권리 보장과 브 랜드 가치훼손을 미리 방어하겠다는 포석

으로도 해석된다.

지난해 오픈 AI가 선보인 챗 GPT는 네 이밍을 통해 첫 효과를 충분히 입증했다. 출시 이후 폭발적인 관심으로 AI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하게 굳혔다. 이런 오픈AI가 왜 이제서야 GPT 사용에 제동을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아직 ‘GPT’라는 단어의 상표 등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데 이터GPT, 메디컬GPT 등 글로벌 기업들 이 GPT 관련 상표등록 시도에 속도를 내 기 시작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사실 오픈 AI는 지난해 12월 GPT에 대한 상표를 출 원했다. 하지만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수 수료 미납 ▲서류 미제출 등으로 상표 출 원을 거부 당한바 있다.

상표 출원은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6 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서류심사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과정도 복잡하다. 그 사이 타기업이 GPT라는 단어를 먼저 상표 등록을 허가받게 되면 지금까지의 모 든 과정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에 오픈 AI는 올해 상표출원에 더욱 적극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GPT라는 단어를 놓고 오픈 AI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엇갈린 입장이나온다.

GPT 중 T에 해당하는 ‘Transformer’ 가 고유명사일 뿐만 아니라 이미 신경망아 키텍처라는 뜻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기 때 문에 독점으로 상표권을 얻기 힘들 것이라 는 목소리와 우수한 브랜드 성을 고려해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첫 출범 시 인류에 도움되는 방향 으로 기술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모 순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 속 국내 기업들만 난감한 상황이다. 잇불 리 서비스 명을 바꾸자니 아이덴티티를 생 각해야 하고 그대로 가자니 방향성이 모호 하다. 자칫 잘못하면 손을 못쓸 수도 있 다. 이런 상황 속 정부는 ‘법’ 국가적으로 해당 문제를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vitna@

오늘의 운세 5월 8일 (금 3월 19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도 강이 있다. 48년생 증여를 해줬으니 축복이자 복덕이다. 60년생 자기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72년생 나도 싫으면 남도 싫은 것이 사람의 감정이다. 84년생 이제부터는 지난 일을 근심하지 마라.
- 소** 37년생 닭띠와 언쟁하지 않도록. 49년생 바다가 길을 막아 오도 가지도 못한다. 61년생 부모가 물려 준데도 기업을 운영하려면 공부해야 한다. 73년생 조직에서 목소리 크게 내지 마라. 85년생 피곤한 일이 행복으로 여겨진다.
- 호랑이** 38년생 해운업이나 해산물 관련 일은 길손 허다. 50년생 큰 부자는 절대로 인색하지 않다. 62년생 재물로 남에게 관대하면 돈이 내게로 오면서 존경을 받는다. 74년생 연 장근무로 효과를. 86년생 결정 장애처럼 종일 유유부단.
- 토끼** 39년생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오복의 하나. 51년생 지인에게 돈 부탁해야 소용없다. 63년생 퇴근 후 일찍 귀가. 75년생 형제끼리 누가 잘 하나를 따지면 무엇을 하겠는 가. 87년생 골 같은 아내가 여우같은 마누라보다 낫다.
- 염** 40년생 친구인 시어머니들이 만나면 괴상한 머리만 있다. 52년생 목인 기도를 해 보라 일이 해결된다. 64년생 상술도 능력이다. 76년생 밀리는 도로이니 아침 일찍 나 서라. 88년생 현재에 충실한 것이 미래를 온전히 하는 요소.
- 뱀** 41년생 차매 증상이 인품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53년생 재운이 상승이니 주 식 투자도 운수대길이다. 65년생 지지부진한 답답함만 있다. 77년생 소개팅이 있는 날. 89년생 평소 예견을 조직에서는 조직의 뜻을 따르자.
- 말** 42년생 재테크로 부의 불평등을 스스로 벗어났다. 54년생 말의 흥수시절 조심은 하자. 66년생 결혼이 필수시대였으나 혼자 가는 길. 78년생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 90년생 선택과 결정은 적시성도 중요하니 때를 놓치지 않도록.
- 양** 43년생 상대에게 위함을 받으려는 태도는 미움을 산다. 55년생 재물요구가 많은 자 녀들로 골치가 아플 것. 67년생 동료라 이기적이긴 하나 영연력은 우수. 79년생 말은 일을 매듭짓는다. 91년생 어디서나 인간 세상의 원칙은 있는 법.
- 원숭이** 44년생 불화를 겪지 않으려면 자체를 성찰하라. 56년생 미모가 있으나 인덕이 박하 다. 68년생 너무 앞서면 꽃잎이 피기도 전에 스러진다. 80년생 적법한 부동산을 사도 록. 92년생 회사의 자사를 좇아 일하는데 불만이 왜 많은 것인지.
- 닭** 45년생 주말 낚시는 귀신들린듯 피곤을 가져온다. 57년생 작은 것에도 긍정적이나 재물과 연관된다. 69년생 다른 이들에게 눈 돌리지 않도록. 81년생 능력이 남보다 열 등해도 고민하지 말자. 93년생 남에게는 불공정하지 말라면서 자신은.
- 개** 46년생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며 대화. 58년생 임금귀는 당나귀 귀이니 남 얘기로 삼지 말도록. 70년생 의사소통으로 일을 해결해야. 82년생 경청하면 일이 해결. 94년생 화를 자제하고 밥을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가져보자.
- 돼지** 47년생 미워하는 사람을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듯. 59년생 늙지는 않았으나 힘들다. 71년생 싸우다가 주먹질이 오가지 않도록. 83년생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찾는 것은 비현실. 95년생 구슬이 촌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서의 판단이다.



김상회의 四季 검은 황금

검은 황금이라고 불린 작물이 있었다. 금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았던 후추다. 지금은 너무 흔하고 값이 싸지만 한때는 유럽 각국이 국운을 걸고 쟁탈전을 벌인 작물이었다. 유럽에 후추가 처음 전해진 것은 기원전 4세 기였다. 인도남부가 원산지인 후추는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 유럽에 알 려졌다. 당시 유럽에는 별다른 향신료가 없어 육류를 소금에 절여서 먹었 는데 색다른 맛과 향을 지닌 후추는 혁명 같은 새로운 맛을 선사했다.

육류를 오래 보관하는 데도 효과적이어서 시대를 뒤흔들 만큼 인기 를 끌었다. 문제는 유럽에서 후추 수요가 급증하며 가격이 상승도 못 할 정도로 뛰었다. 후추 수입에 성공하며 무려 1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베네치아는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면서 후추공급을 독점하다시피 했고 후추라는 거대한 시장을 만들었으며 엄청난 돈을 끌어 담았다. 이런 후추 를 각국이 그냥 돌리 없었다. 대서양에 접해 있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인도로 가는 항로 개척에 나섰다. 검은 황금을 찾아 나선 포르투갈은 아 프리카 곳곳을 식민지로 만들었고 스페인은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을 발 견했다. 결국 후추가 인류 역사까지 바꾸어 놓았다. 후추로 시작된 대항 해 시대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부를 얻었고 유럽의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후 추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 부를 향한 열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코로나 이후 더 뜨거워진 재테크 열풍은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고 있다. 마치 후추를 찾아 나선 유럽 각국처럼 부를 향해 국가도 개 인도 다르지 않다. 아마 백 년 또는 천 년이 지나도 다르지 않을 것이 다. 부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욕망이라는 걸 세계역사 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벽 5시**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 부등호 슂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슂도쿠66 | 10,000원

3	9			1		2	7
2	4		5			3	1
8						7	
							9
	5						
4	2			7		9	3
1	8		3			5	6

8				1		5	
	9	2	4		6		
9					1	8	
	2				3		
7	1						5
		7		1	6	8	
					3		
							6
9		5					

고난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정답

9	7	6	2	8	1	8	1
8	6	1	1	9	8	9	2
2	8	1	9	7	1	6	8
6	7	8	1	9	2	1	9
8	1	2	8	1	7	9	6
9	1	9	7	6	2	8	1
7	9	8	2	8	6	1	1
1	8	6	9	1	9	8	7
1	2	9	1	8	7	9	6

8	7	1	8	2	9	9	6	1
9	1	9	8	6	1	8	7	2
2	6	8	9	1	7	1	8	9
9	2	6	7	8	1	1	9	
1	9	8	6	9	1	2	8	7
7	8	1	2	1	9	8	9	6
8	1	9	9	7	2	6	1	8
1	8	7	1	9	6	9	2	8
6	9	2	1	8	8	7	9	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 전역 '역사도시' 만든다더니 6곳 중 5곳이 종로구... 취지 무색

제1기 역사도시 기본계획

'동네역사관 사업' 중단으로 다른 자치구 시설 조성 무산 프로그램 시민 참여도 저조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시가 '제1기 역사도시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만들거나 복원한 역사문화시설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종로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을 역사 교과서의 현장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수립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시에 따르면, 제1기 역사도시 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서울시에 신규 조성·건립 및 복원한 역사문화시설 6곳 중 5곳이 종로구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2021년까지 발굴·보존, 활용·향유, 연구·교육, 지역·세계 총 4개 분야에서 56개 이행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가 2017~2021년 추진한 1기 기본계획은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발전시켜 도시 전역을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의 현장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고,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1기 기본계획을 통해 서울시에 새롭게 조성·건립된 역사문화 시설로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 (종로구),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 (종로구),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종로구), '서울생활사 박물관' (노원구)이 있다. 이와 함께 엘버트 테일러의 저택인 '달쿠사' (종로구)가 원형 복원됐다.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생활사 박물관을 제외하면 전부 종로구에 소재해 있다.

게다가 시는 '동네역사관 설립 지원사업'을 수요 부족을 이유로 중단시켰다. 이는 시민 스스로 지역 역사를 연구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동네역사관을 만드는 사업이다. 동네역사관은 지역사회의 유·무형 역사문화 자원과 스토리 등을 발굴·향유하는 기능을 할 예정이었으나 시의 사업 중단 결정으로 종로구 외 다른 자치구에 생길 수 있는 문화역사 시설 조성이 무산됐다.

시 스스로도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시는 '제1기 기본계획 추진 현황'에서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으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서울 전체 공간을 역사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논의가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역사문화유산 활용·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참여도 또한 저조했다. 시가 작년 5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행사에 참여해봤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2.7%밖에 되지 않았다. 일상에서 역사문화유산을 즐기고 있다고 답한 시민은 절반(52.9%)에 그쳤고, 관련 행사 참여 횟수는 1.79회로 적었다.

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제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종로구를 중심으로 한 사대문 안 역사성 회복 등에 시는 향후 5년간 1조28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벤처·스타트업 지원 2026년까지 5조 펀드 조성

'서울 비전 2030 펀드 출자사업'

4년간 3500억 자체 예산 확보 정부 모태 펀드·민간 투자 연계



서울시청.

서울시는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향후 4년간 5조원 규모로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026년까지 시는 스케일업 펀드 1조4000억원, 첫걸음동행펀드 2500억원, 디지털대전환펀드 1조원, 창업지원 펀드 1조원, 서울바이오펀드 7500억원, 문화콘텐츠펀드 6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4년간 3500억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 모태 펀드와 민간 투자 자금을 연계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우선 시는 스케일업과 창업지원 펀드에 대해 오는 8일 각 100억원, 40억원 규모의 출자 공고를 추진한다. 시는 서면·대면 심사를 거쳐 내달 운용사를 선정한다. 다른 분야에 대한 출자 공고도

6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비전 2030 펀드 출자사업' 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부터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AI, 바이오, 핀테크, 콘텐츠 등 미래유망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벤처·스타트업계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보릿고개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내 재개발 후보 공모 '수시 신청' 전환

연내 후보지 3.4만 호 추가 선정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진행했던 서울시내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8일부터 시기에 관계 없이 주민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매월 수시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그간 공모로 확보한 9만

6000호 외에 연내 재개발 후보지 3만 4000호 이상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수시 신청 요건은 공모 때와 동일하다. 법령·조례 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포털' 홈페이지나 서울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기후·에너지 관련 中企 지원

경기 RE100 유망에너지 社 지원사업 15개社 선정... 최대 2200만원 지급

경기도가 도내 기후환경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경기 RE100 유망에너지 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 RE100' 추진

전략의 하나인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경기도 기후·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5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지정서 및 현판(인증 기간 3년)이 수여되며 ▲신제품 개발 ▲국내외 인

증확득 ▲전시회 참가 ▲마케팅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당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업력 3년 이상으로 경기도에 분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 관련 매출액 비중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 선정한 에너지 중점기술 4대 16개 분야(에너지 신산업 육성, 고효율 저소비 구조혁신, 깨끗 안전한 에너지 공급, 분산형 에너지 확충)의 에너지산업 및 연관산업 분야에 포함되는지 사업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지원 기업 중, 드론용 연료탱크를 개발하는 하이리움산업(주)은 액화수소 연료탱크 제작공정 지원을 받아 생산효율 및 품질을 향상시켜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0배 이상 증가했다. (주)에스엠케이(에너지저장장치(ESS)와 이를 충전하는 통합 교환형 충전스테이션의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 누리집과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을 받아 CES 전시회에 참가해 해외 판로개척의 발판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대표 에너지기업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한 240억 원 매출액을 달성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셴클라우드' 구축

(클라우드 통합협업플랫폼)

서울시교육청, 10만 교직원에게 스마트·편리한 업무환경 제공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클라우드 통합협업플랫폼(셴클라우드)'을 구축했다. 지난달 17일부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차 시범운영을 진행했으며 8일부터 학교까지 전면 개통·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셴클라우드는 학교와 교육청 교직원에게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소통과 업무협업이 가능하도록 돕는 업무용 통합협업플랫폼이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돼 PC와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구축개통하는 셴클라우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스마트 행정혁신의 일환이다. 10만 교직원이 다양한 업무

무환경에서 협업 도구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축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과 온-택트 시대 도래로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장 교직원이 업무처리 시 사무실, 자택, 출장지 등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안전하게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스마트한 업무환경이 필요했다. 하지만 온라인 협업시스템 부재로 소통과 협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클라우드 통합협업플랫폼 구축 TF'를 구성해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안 시스템을 적용한 맞춤형 자체 클라우드 통합협업플랫폼을 구축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오늘의 날씨

5월 8일 (월) 음력 : 3월 19일

수도권 날씨 9~22℃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30 | 해질 / 19:28

연천 4/23, 동두천 6/24, 가평 5/24, 양평 6/23, 용인 9/21, 평택 6/22, 수원 9/21, 인천 10/19, 파주 5/23, 서울 9/22, 백령도 11/1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지옥의 화염' 휩싸인 바흐무트... "러, 백린탄 투하" /사진 뉴시스
▲美 주말 한낮에 대형 쇼핑물 추기난사...최소 9명 사상

▲북한 서해 불법한적 올해 38건..지난 해 건수 넘어
▲中 단둥서 北 트럭 움직임 포착...北, 3년만에 中 무역재개 관측



▲英 찰스 3세 대관식...反군주제 시위 대 등 52명 체포 /사진 뉴시스
▲中시진핑, 英 찰스 3세 대관식에 축전...“평화, 함께 추동해야”



반려동물 시장 성장
유통업계
다양화·고급화 박차
나



Life

어린이 홀린 티니핑
굿즈상품 완판
행사장 '복적'
L2



“하루 ‘시작과 끝’ 함께... 우리 음악으로 샤워실 채우고파”



새벽을 여는 사람들

샤워시스템

조성민·이원재·박태현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향유 문화고 소비가 되어 의미가 있다. 우리 음악이 어디서 소비되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 사람들이 샤워할 때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보컬 이름을 ‘샤워시스템’으로 결정했다.”

조성민 샤워시스템 보컬(31)은 음악을 시작한 지 15년이 됐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기타를 잡았고 당시 함께 밴드를 하던 친구들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함께 활동하는 이원재(31), 박태현(31)씨 또한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친구들과의 의사결정과 방향성 등을 논의하는 만큼 소통이 자유롭다는 강점이 있다. 그들은 편안한 소통 문화가 그룹의 ‘장수 비결’이라고 귀띔했다.

3인조 일렉트로닉 음악그룹
각자 생업 종사... 퇴근 후 곡 작업
지난해 7월 1집 앨범 ‘임욕’ 발표

샤워시스템은 3인조로 결성된 일렉트로닉 음악그룹이다. 과거 ‘조이파크’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지만 새출발을 꾀하고자 2년 전 팀을 재결성했다. 조이파크로 활동하던 시절 ‘청춘페스티벌’, ‘네이버 온스테이지’ 등 메이저 무대에서 경력을 쌓은 바 있지만 체질 개선이 더 늦어져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낮에는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퇴근 후 신촌에 위치한 작업실에 모여 곡 작업을 한다.

팀명을 바꾸고 지난해 7월 본격적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1집 앨범의 이름은



(왼쪽부터) 샤워시스템 박태현, 이원재, 조성민.

/샤워시스템

‘임욕(淋浴)’이다. 한 앨범에 음악 10곡을 수록했다. 그룹의 슬로건은 ‘샤워할 때 들어요, 샤워시스템’이다. 구성원들은 타이틀곡인 ‘77’과 6번 트랙인 ‘아닌데’를 추천했다.

‘대중성’과 ‘매니아’ 사이에서 고심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만 하는 것’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지속했다. 결국 예술은 소비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결론에 도착했다. 걸작을 만들어도 소비되는 공간이 없으면 ‘무용지물’.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음악이 어디서 소비되는지 고민을 시작했다.

그들은 음악 장르별로 소비처를 찾기 시작했다. 발라드 음악은 주로 노래방에서 소비되고 있었다. 디스코(Disco), 하우스(House), 테크노(Techno) 음악은 주로 클럽에서 들어왔다. 이후 음악이 아닌 공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결국 하루의 ‘시작과 끝’인 샤워실에서 소비하는 음악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세 명의 멤버 모두 “우리의 음악을 샤워실에서 들어주고 장기적으로 ‘샤워할 때 듣는 음악’으로 인식해 주면 기쁠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샤워시스템은 작업 공간을 옮길까 고민하고 있다. 생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신촌에서 작업실을 유지하기에는 월세 부담이 커서다. 5평 남짓 지하실이지만 신촌·홍대 등 수요가 높은 곳은 월세가 높은 편에 속한다. 아울러 현 작업실에서 5년을 보냈다.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 공간 변화를 통해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조성민 씨는 “멤버마다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퇴근 후 작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우리 나이 또래 음악인들이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최근에는 공간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재 씨는 “현 작업실에 들어온 지 5년이 지났다. 공간의 변화가 없으니 생활에 안주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새 출발과 함께 새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음악 이외에도 문화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 세로토닌’이란 팀을 결성해 ‘미디어 아트’를 하고 있다. 디지털 세로토닌에서는 지난해를 시작으로 현대자동차와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로원 스튜디오’에서 예술과 기술을 접목하는 일을 돕고 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 자동차가 향해야 할 부분에 관해 함께 고민하고 있다. 현재 로션 자율주행이 미래 자동차의 방향이다. 이동수단에서 ‘이동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세로토닌 팀에서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상상했고 주행 중 마주하는 환경데이터를 재가공해 탑승자에게 콘텐츠로 제공하는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원재씨는 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실무를 보고 있다. 캐나다에 살면서 쌓았던 어학 실력을 적극 활용한다. 주로 유럽 국가에 한국 물건을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유럽과 한국의 시차를 고려해 주로 오후 1시까지 출근한다. 퇴근 후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곡 작업을 한다. 일산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면 오전 2시~3시쯤이다.

이 씨는 “음악에 몰두하고 있지만 별도의 수익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일에 지치고 늦은 시간까지 곡 작업을 하지만 내 꿈을 이루고 실현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했다.

박태현씨의 생업은 이발사다. 본인의 ‘바버샵(Barber Shop)’에서 손님들의 머리를 깎는다. 작은 업장이지만 사장님이다. 낮에는 바버샵 사장님, 밤에는 일렉트로닉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반등의 해’ 설정... 2집 준비
“꿈 위한 노력, 힘들다 생각하지 않아
‘샤워할 때 듣는 음악’ 인식되기를”

박 씨는 “두 일 모두 정말 사랑하고 있다. 음악과 이발 모두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예술가라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과거 조이파크 시절 마지막 앨범을 녹음하는 날 아침까지도 가사가 떠오르지 않은 적이 있었다. 역으로 음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적표로 환산하면 스스로 ‘낙제점’을 부여한 셈이다.

세 멤버 모두 올해는 2집 준비에 몰두할 계획이다. 과거 조이파크로 활동할 시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 운 좋게 유명세를 탔다고 생각해서다. 실력적인 부분과 음악에 관한 지식 등을 향상시키는 ‘반등의 해’로 설정했다.

조 씨는 “무사가 단 한번의 전투를 위해 수일간 칼을 갈듯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샤워할 때 우리의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샤워시스템이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
/샤워시스템

버스타비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김하성, 다저스전 4타수 무안타...타율 0.218 /사진 뉴스스
▲비니시우스 뚫고 호드리구 2골...레알, 20번째 국왕컵 우승

▲KOVO 외인 트라이아웃...“눈에 띄는 선수가 없다”
▲타이거 우즈 전 애인, “성추행·협박 당했다” 고소



▲‘일대일 찬스 놓친’ 손흥민, 팰리스전 평점 6~7점대 /사진 뉴스스
▲자존심은 지켰다...女골프, 국가대항전 한일전 완승

KB금융그룹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찾기
KB Good Job

Have a

원하던 일자리
다 모였으니까!

취업박람회



KB굿잡 취업박람회 | KB국민은행이 주최하는 단일 규모 국내 최대 취업박람회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22회에 걸쳐 5천여개의 우수기업과 114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약 3만 2천여건의 일자리를 연결했습니다

단일규모국내 최대 2023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2023. 5. 22.(월) ~ 23.(화) 서울 COEX B홀

주최 KB국민은행 주관 동반성장위원회 한국무역협회 KBIZ 중소기업중앙회 koita 한국산업기술협회 KOSDAQ 코스닥협회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건설고용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sba 한국산업단지공단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도일자리재단 전국대학교 취업관리사협의회
후원 교육부 대한민국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KB금융공익재단

 KB 국민은행